

사고력이 필요한 신유형이 1등급을 좌우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단순 비교 문제에서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한 문제까지
점점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신유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이스토리는 신유형 문제들의 출제 의도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 풀이에 적용할 개념을 찾고
문제 풀이 순서를 알려주어
신유형 문제에 적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등급 고난도 문제들은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찾고
단서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발상’과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입체 첨삭 해설 시스템으로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정답의 근거와 매력적 오답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수험장 극비 노트]에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그림, 도표 등으로 수록하였고,
나만의 비법을 노트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여러분은 이미 수능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1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헛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42		월	일	월	일
2	B 01~39		월	일	월	일
3	C 01~38		월	일	월	일
4	D 01~05, E 01~06		월	일	월	일
5	F 01~24		월	일	월	일
6	25~49		월	일	월	일
7	G 01~36		월	일	월	일
8	H 01~24		월	일	월	일
9	25~48		월	일	월	일
10	I 01~32		월	일	월	일
11	33~48, J 01~12		월	일	월	일
12	K 01~24		월	일	월	일
13	25~43		월	일	월	일
14	L 01~44		월	일	월	일
15	M 01~36		월	일	월	일
16	N 01~40		월	일	월	일
17	O 01~44		월	일	월	일
18	P 01~42		월	일	월	일
19	Q 01~29		월	일	월	일
20	30~45, R 01~06		월	일	월	일
21	S 01~24		월	일	월	일
22	25~47		월	일	월	일
23	T 01~36		월	일	월	일
24	U 01~16, V 01~23		월	일	월	일
25	W 01~26		월	일	월	일
26	X 01~20		월	일	월	일
27	Y 01~43		월	일	월	일
28	Z 01~41		월	일	월	일
29	모의고사 1~3회		월	일	월	일
30	모의고사 4~6회		월	일	월	일
31	모의고사 7~10회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년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자이스토리 생활과 윤리 활용법 + α

❶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출 선택지로 개념을 꼼꼼히 체크!

- 수능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테스트합니다.
- **출제** 2026 대비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을 알려줍니다.



❷ 등급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 특강”으로 완벽히 마스터!

-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유형과 해당 문제를 푸는 단서, 발상,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 간단한 빈칸 채우기를 통해 특강을 읽으면서 함께 풀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❸ 개념별 기출 문제 풀이로 수능 실전력을 높이자!

- 수능 문제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개념과 선택지의 문장을 파악합니다.

❹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는 단원별 학습이 끝난 후에 풀어 보세요.

- 실제 시험을 치를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풀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등급컷으로 객관적 실력도 체크)
- 모의고사를 풀 후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틀린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확인하세요.



❺ 1등급, 고난도 대비 문항은 특강 해설로 마스터하세요!

-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 풀이의 '발상', 문제에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왜 틀렸나', '시간 단축 tip', '문제풀이 tip'을 통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tip을 알려줍니다.

❻ 쉽게 이해되는 입체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해설에 제시된 정답의 단서를 파악하고, 함정, 주의, 꿀팁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마세요.



❼ [수험장 극비 노트]로 수험장 1등급 비법을 꼭 챙기세요!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비법 노트'에 자주 헛갈리는 내용을 쓰고 단권화 노트로 사용하세요.



단원별 핵심 개념 + 최신·중요 문제

동영상 강의 QR코드



- ❶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내용을 동영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 ❷ 해설과 다른 풀이를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 ❸ 긴 시간 혼자서 공부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해 보세요!
- ❹ 강의를 통해 어려운 분배적 정의, 동·서양의 자연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1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
B 동양 윤리적 접근	2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
C 서양 윤리적 접근	39
1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2 덕 윤리적 접근과 도덕 과학적 접근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41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42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5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4
동아리 소개/연세대학교 문예 창작 동아리	56
II 생명과 윤리	
E 삶의 가치와 윤리	5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60
F 죽음과 윤리	62
1 죽음의 윤리적 의미와 삶의 가치	
2 자살과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6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65
G 생명 윤리	78
1 생명과 관련한 윤리적 쟁점	
2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8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81
H 사랑과 성 윤리	90
1 사랑 · 성의 의미와 윤리적 문제	
2 결혼과 가족의 윤리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9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93

III 사회와 윤리

I 직업과 청렴의 윤리	106
1 동서양의 직업관	
2 직업 윤리의 의미와 기업가 · 근로자 윤리	
3 전문직과 공직자 윤리 및 부패와 청렴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0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09
J 사회 윤리와 정의	121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2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3
K 분배적 정의 [1등급 대비]	12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2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9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39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140
L 교정적 정의 [고난도 대비]	14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47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58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59
M 국가의 권위와 의무 [고난도 대비]	163
1 국가 권위의 정당성	
2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6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65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72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73
N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고난도 대비]	17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7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78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85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86
• 한눈에 보는 사상이 비교 (롤스와 노직)	190

IV 과학과 윤리

O 과학 기술과 윤리	192
1 과학 기술의 의미와 가치중립성 논쟁	
2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9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95
P 정보 사회와 윤리	20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0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09
Q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등급 대비]	220
1 동양의 자연관	
2 서양의 자연관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2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23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33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234
R 환경 문제와 윤리	240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41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2
• 한눈에 보는 사상가 비교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244

V 문화와 윤리

S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246
1 예술과 윤리의 관계	
2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4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9
T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261
1 의식주 윤리	
2 윤리적 소비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6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4
U 다문화 사회의 윤리	273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7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75
V 종교와 윤리	27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8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81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W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28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9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1
X 민족 통합의 윤리	29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9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0
Y 지구촌 평화의 윤리	305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8
Z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고난도 대비]	31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2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21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330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331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생활과 윤리 등급컷 수록 333

01회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334
02회 2025 실시 5월 학력평가	338
03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342
04회 2026 대비 6월 모의평가	346
05회 2025 실시 7월 학력평가	350
06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354
07회 2026 대비 9월 모의평가	358
08회 2025 실시 10월 학력평가	362
09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66
10회 2026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70

빠른 정답 찾기 375

중요 · 핵심 개념 +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 총정리 +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으로 수능 1등급 완성

1 최신 수능 출제 경향 분석+개념 총정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총정리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 **출제 경향 분석:** 2026 대비 수능 출제 분석
- **출제:** 2026 대비 수능, 6·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출제 경향 제시
- **꼭 외워!** 각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할 내용 총정리
- **QR코드:** 단원별 핵심 개념 + 문제 풀이법 동영상 강의



B

동양 윤리적 접근

★ 2026 수능 출제 분석

- 공자의 사상: 유교 사상가인 공자의 사상에 대한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6월, 9월 모의고사 등이 유교 윤리와 도교 윤리를 비교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므로 각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주장을 숙지해야 한다.

구분	출제 개수
2026 수능	공자의 사상
2026 9월	노자의 행자의 사상
2026 6월	공자의 노자의 사상
2025 수능	맹자의 노자의 사상

1. 유교 윤리의 접근

① 사회적 혼란의 원인: 인간의 도덕적 타락 ⇒ 도덕적 인간과 도덕적 사회 추구

② 사회 혼란의 해결책: 인적 수양과 도덕적 실천 강조, 사회적 가치 중시 ⇒ 대동 사회



★

2026 대제
2026 대제
2026 대제

2. 유교 윤리의 특징과 현대적 시사점

① 인간의 도덕적 본성 강조

② 인간의 본성¹은 이미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하늘의 의지가 인간에게 반영됨

③ 인간은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이지만,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음 ⇒ 극복 방법으로 경(敬)과 성(誠)을 강조함

④ 도덕적 실천을 위한 가치 지시

★

2026 대제
2026 대제
2026 대제

6월은 공자의 노
맹자의 행자의 사
9월은 노자의 맹
사상을 비교했다.
수능은 공자의 사
상제되었다.

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개념 순서와 단계별 난이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념 적용 훈련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주제별 배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세분화해서 문항 배열
- QR코드: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A01 ☆☆☆

2025 대비 수능 1

(가), (나) 물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물리학은 학제적 연구 방법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언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A03 ☆☆☆

2026

(가), (나) 물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물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본소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 실제 수능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와 선택지로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정답 및 해설 수록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십시오.

- ① 공자는 인간과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 사상을 제시하였다. (○, ×)
- ② 공자는 이상적 인간은 하늘의 명(天命)을 도덕적 실천의 근거로 삼는다고 하였다. (○, ×)
- ③ 맹자는 타고난 본성을 극복하여 측은지심(惻隱之心)을 발휘할 것을 주장하였다. (○, ×)
- ④ 맹자는 사단(四端)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 ×)
- ⑤ 불교에서는 자아의식은 변하지 않는 실체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 ⑥ 연기(緣起)란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는 뜻이다. (○, ×)
- ⑦ 불교에서는 바른 수행으로 만물이 서로 독립하여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⑧ 노자는 인간이 제정난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無爲)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 ×)
- ⑨ 장자는 세상 만물은 평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제물(齊物)론을 주장하였다. (○, ×)
- ⑩ 장자는 성인(聖人)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 ×)

03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기하십시오.

[A: 갑인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의 입장]

- ① 도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규범을 확립한다.
- ② 율령한 인제가 선포되는 도덕 공동체를 만든다.
- ③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충서(忠恕)를 실천한다.
- ④ 자신을 구속하는 일체의 것을 잊고 살아가 한다.
- ⑤ 성인은 도덕과 예의(禮義)로써 세상을 다스린다.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04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기하십시오.

4 1등급,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고난도 문제를 푸는 단서 + 발상, 적용법, 유형 대비법, 문제 풀이 순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빈칸 채우기:** 특강을 읽으면서 간단한 빈칸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illegible]

5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수록

실전 대비를 위해 실제 모의고사 원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2025년 시행 7회: 전문형
- 2024년 시행 3회: 수능, 6월과 9월 모평
- ※ 최신 모의고사 10회분 등급컷 수록

202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487~489p

제1회
I.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생활적 인간'을 창작성에 의한 명예 훼손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바람직한 인간존재를 만들기 위한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바람직한', '윤리' 등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II. 다음을 주어진 사실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족해하는 채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있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채지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문제 상황>
'하루 20만 원으로 행복 찾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등학생 A는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읽습니, 소문

[별책 부록] 수험장 극비 노트



- 1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17개 선정
- 2 문제 풀이 꿀팁
- 3 나만의 비법 정리

6 1등급 ·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와 특별 해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따로 1등급 대비, 고난도 대비로 분리해 수록했습니다.

- ★ **1등급 대비** : 정답률이 40% 내외의 1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 ★ **고난도 대비** : 정답률이 40~50% 내외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Q40 1등급 대비 2024 대비 9월 모평 10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교묘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기의 교묘한 선을 지니고 있다.

을: 살아 있는 인공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일원에게 고유의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실현적으로 수반한다.

병: 동물을 학대하기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잔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적으로 동지적우의 입장을

Q40 정답 ③ 1등급 대비 [정답률 37%]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교묘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기의 교묘한 선을 지니고 있다.

② 살아 있는 인공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일원에게 고유의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실현적으로 수반한다.

③ 동물을 학대하기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잔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적으로 동지적우의 입장을

L39 고난도 2024 대비 9월 모평 9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 생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행위를 요한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문하는 인의 의에 있는 인간성을 초월하여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을: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L39 정답 ⑤ 고난도 [정답률 25%]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자연 생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행위를 요한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문하는 인의 의에 있는 인간성을 초월하여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②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③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7 입체 탐사 해설!

문제+자료 분석
제시된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줍니다.

정답률
교육청 자료, 기타 기관
공시 자료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제시됩니다.

출제 개념
문제의 핵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선택지 분석
선택지별로 정답과
오답인 이유를 자세하고
알기 쉽게 분석합니다.

출처
출제된 기관과 시기를
알려줍니다.

탐사 해설
정답과 오답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알려줍니다.

함정
함정을 체크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수능 해강
문제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풀이 Tip
꼭 암기해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단서 + 발상
(단서)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을 꼭 짚어
알려줍니다.

발상 단서를 통해 문제
풀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합니다.

KEY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수험장 생생 체험
선배들이 수험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풀이
비법을 알려줍니다.

문제 풀이 Tip
쉽게 풀이할 수 있도록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줍니다.

틀렸나?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Q39 정답 ④ * 아리스토텔레스와 하이데거의 기술관 [정답률 76%] 2023 대비 수능 7
갑 사상가가 을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적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인공의 공작품 한어.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전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아리스토텔레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수단에 불과함

을: 기술은 은폐되어 존재하는 것을 발음케로 길로 이끄는 것이다.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져 종속되어진다. → 하이데거: 기술은 존재 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님

① 인간의 개입 없이도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기술은 수단일 뿐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② 기술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기술의 본질을 고찰해야 함을 간과한다. 을(하이데거)은 발음케하는 기술에 종속되어서야 함을 주장함

③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결핍됨을 간과한다. 갑(아리스토텔레스)은 기술의 활용이 가치를 고려할 것을 주장함

④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임을 간과한다. 기술은 발음케한 방식이 아니라 단지 수단에 불과함

Q47 정답 ① * 자연에 대한 칸트, 심어, 테일러의 입장 ★1등급 대비 [정답률 31%] 2023 실시 4월 학평 15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그런 행위는 칸트 도덕성을 충족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② 인간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 인간 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고려

③ 심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 유익하게 작용 가능한 경계이다. → 최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 고려

④ 모든 생명체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유일한 테일러 개념이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 고려

Q40 1등급 대비 2024 대비 9월 모평 10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교묘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기의 교묘한 선을 지니고 있다.

을: 살아 있는 인공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일원에게 고유의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실현적으로 수반한다.

병: 동물을 학대하기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잔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적으로 동지적우의 입장을

Q40 정답 ③ 1등급 대비 [정답률 37%]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①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교묘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이유로 자기의 교묘한 선을 지니고 있다.

② 살아 있는 인공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일원에게 고유의 행위를 구성함으로써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실현적으로 수반한다.

③ 동물을 학대하기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잔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적으로 동지적우의 입장을

L39 고난도 2024 대비 9월 모평 9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연 생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행위를 요한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문하는 인의 의에 있는 인간성을 초월하여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을: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L39 정답 ⑤ 고난도 [정답률 25%]
(가)의 값, 윤,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자연 생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행위를 요한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문하는 인의 의에 있는 인간성을 초월하여 행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②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③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유현상 광양 광양제철고등학교
이현우 서울 당곡고등학교
정선우 인천 대인고등학교

조승연 서울 장충중학교
한혜정 고양 저현고등학교

**중요·핵심 개념 + 문제
동영상 강의**



정선우 선생님

[특별 감수진]

권영수 문경 마성중학교
김경아 용인 상현고등학교

김부경 서울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송은섭 서울 동덕여자고등학교

주미림 원주 미래고등학교
최규범 경산 경산여자고등학교

[감수진]

강대성 서울 대입정보학원
구혜지 서울 풍문고등학교
김경민 포천 동남고등학교
김남규 제주 제주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서울 (강남)썸학원
김병욱 광주 경신여자고등학교
김상준 무안 무안고등학교
김성희 포항 대동고등학교
김영우 서울 배재고등학교
김윤미 전주 유일여자고등학교
김윤희 서울 장충고등학교
김일영 대치청년학원, 광릉한샘기숙학원
김정민 남양주 다산 민스터디학원
김정선 울산 역사놀이터앤김쌤사회탐구
김주영 울산 사회탐구생활사회교습소
김태현 포항 포항중앙고등학교
김호정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남현지 아산 온양융화고등학교
류상준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문수빈 창원 경일고등학교

박경호 포항 유성여자고등학교
박은미 서울 금천고등학교
박지훈 서울 SR사회탐구학원
박진경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박진수 광주 광주동신고등학교
박진우 서울 송파사회탐구학원
배탐스 안양 삼성학원
백지민 대전 우송고등학교
서무경 부산 대연고등학교
성지윤 진주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
송남용 성남 송신여자고등학교
송유하 서울 영신고등학교
양선희 제주 남녕고등학교
양태훈 인천 동산고등학교
양현철 광주 대성여자고등학교
오재성 화성 비봉고등학교
유미경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
유영진 부산 센텀중학교
유은채 대구 이류사탐학원
유태진 하남 미사고등학교

윤성집 안성 수만휘기숙학원
이보람 서울 현대고등학교
이은정 서울 성덕고등학교
이재원 경주 경주여자고등학교
이한빈 서산 서일고등학교
임은영 안산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임종모 고성 고성고등학교
장연정 창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장재혁 서울 덕원여자고등학교
장한빈 군산 상일고등학교
전상목 부산 대동고등학교
정민교 영천 영천여자고등학교
정지현 서울 서울예술고등학교
주창현 전주 전라고등학교
최성영 대전 포텐셜학원
최승규 부산 신정고등학교
최원석 안성 고려대최쌤
하규봉 안산 안산강서고등학교
황 정 대구 김황성 사회
황혜란 광주 서강고등학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 2025년

강다은 대구 계성고 졸 (서울대 의예과)
김연우 대구 정화여고 졸 (연세대 의예과)
김효원 제주 제일고 졸 (서울대 의예과)
박정빈 대구 남산고 졸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배지오 성남 낙생고 졸 (연세대 약학과)
백승준 광주송일고 졸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서정후 광주 송덕고 졸 (아주대 의학과)
성예현 대전전민고 졸 (건국대 의학과)
안한민 익산 남성고 졸
오현준 서울 한영고 졸 (경상대 약학과)
이정근 안양 평촌고 졸 (동국대 wise 의예과)
이지원 대구 성화여고 졸 (고려대 생명과학부)
임지호 부산 동아고 졸 (울산대 의예과)
장운서 부산 사직여고 졸 (중앙대 간호학과)
정규원 부산 남성여고 졸
최승우 광주서석고 졸 (서울대 약학계열)
최아람 서울 광영고 졸 (서울대 국어교육과)
한규진 대구 계성고 졸 (연세대 치의예과)

• 2024년

곽지훈 서울 한영외고 졸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권민재 서울 광영여고 졸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김동현 안성 안법고 졸 (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김서현 대전한빛고 졸 (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김신유 익산 남성고 졸 (순천향대 의예과)
김아린 대전한빛고 졸 (충남대 의예과)
김용희 화성 화성고 졸 (단국대 의예과)
김지희 광주 국제고 졸 (고려대 한국사학과)
김태현 부산 대연고 졸 (서울대 수리과학부)
류이레 광주대동고 졸 (연세대 의예과)
문지민 대구 정화여고 졸 (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변준서 화성 화성고 졸 (건국대 수의예과)
심기현 대구 계성고 졸 (경북대 의예과)
오서윤 서울 광문고 졸 (충남대 의예과)
전성연 부산국제고 졸 (서울대 사회학과)
조수근 성남 태원고 졸 (순천향대 의예과)

👑 2026 응시 👑



강기현
천안 천안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서영
서울 잠실여고 졸업
- 생명과학 I



김서호
안양 신성고 졸업
- 고3 미적분



김연준
안성 안법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윤
익산 이리남성여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김준성
부산 대연고 졸업
- 화학 II



김준영
서울 강서고 졸업
- 고3 확률과 통계



김준희
부산 동천고 졸업
- 세계지리



박수현
대구 대진고 졸업
- 수능 한국사



박에서
화성 안화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박준서
부산 대동고 졸업
- 지구과학 I



방진환
부산 해운대고 졸업
- 고3 기하



우다솔
서울 중앙고 졸업
- 물리학 I



원강희
대전동산고 졸업
- 화법과 작문 실전



이영서
대구 대진고 졸업
- 생명과학 II



이지민
광주대동고 졸업
- 동아시아사



이현수
부산 대동고 졸업
- 화학 I



임준호
광주 문성고 졸업
- 지구과학 II



임지안
광주 금호중앙여고 졸업
- 문학 실전



전상훈
서울 대원고 졸업
- 독서 실전



전시원
대전 한밭고 졸업
- 언어와 매체 실전



정윤서
부산 사직여고 졸업
- 생활과 윤리



정희주
익산 이리남성여고 졸업
- 윤리와 사상



최경준
광주서석고 졸업
- 한국지리



한기주
화성 삼괴고 졸업
- 고3 수학 I, 고3 수학 II



홍서연
남양주 도농고 졸업
- 사회·문화



문항 배열 및 구성 [1081제+개념 체크 문제 591제]

① 최신 5개년(2026~2022) 수능+6, 9월 모평+고3 학력평가 전문항 수록 [700제]

- 최신 5개년 35회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 최신 수능의 경향과 유형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2021 이전 수능+6, 9월 모평+고3, 고2 학력평가 문제 수록 [181제]

- 실력 향상을 위해 우수한 기출문제들을 선별 수록하였습니다.
- 철저한 출제 경향 분석을 통해 수능에 나올 문항만을 수록하였습니다.

③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200제]

- 2025년 7회: 전회차 수록
- 2024년 시행 3회: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 수록
- 회차별 등급컷(원점수, 표준점수) 수록

④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591제]

-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 문제를 제시하여 개념을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생활과 윤리 수록 문항 구성표]

대비연도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합계	비고	
2026	20	20	20	20	20	20	20	140	* 전문항 수록 (문제 특강 6문항 포함)	
2025	20	20	20	20	20	20	20	140		
2024	20	20	20	20	20	20	20	140		
2023	20	20	20	20	20	20	20	140		
2022	20	20	20	20	20	20	20	140		
2021	19	20	20	19	19	20	19	136	* 새교육과정 선별 수록	
2020	2	3	3	4	4	2	4	22		
2020 이전	22							22		
고2	1							1		
총 문항 수									881	연도별 모의고사 200

2026 대비 6월, 9월 모평+수능

생활과 윤리 문항 배치표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1	A 03	A 02	A 01
2	I 03	W 01	K 02
3	O 01	B 02	S 01
4	B 03	C 27	F 01
5	S 03	L 34	H 01
6	N 29	H 02	F 41
7	T 03	T 01	Q 07
8	M 27	X 01	I 01
9	W 03	N 02	N 30
10	Q 30	S 02	W 02
11	P 03	K 01	L 02
12	H 03	F 02	O 16
13	C 01	J 01	M 26
14	L 03	Q 05	B 01
15	Z 02	U 04	K 34
16	F 03	Y 02	P 01
17	Y 03	O 02	C 26
18	G 01	G 28	Y 01
19	K 33	M 11	Z 03
20	V 01	Z 01	G 27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B 동양 윤리적 접근

C 서양 윤리적 접근

1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2 덕 윤리적 접근과 도덕 과학적 접근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 2026 수능 출제 분석

-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두 가지 윤리학을 비교하는 문제는 1번 문제로 고정적으로 출제되므로, 각 윤리학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구분	출제 개념	난이도
2026 수능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
2026 9월	이론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	★
2026 6월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
2025 수능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

1. 윤리의 의미^①와 특징

의미	인간의 무리에서 지켜야 할 도리
특징	• 도덕적 행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음 • 도덕적 행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준을 밝히고자 노력함 •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음

2. 윤리학의 구분



- (1) **규범 윤리학**: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을 탐구하고,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함 ➡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

① 이론 윤리학

의미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u>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윤리학</u>
목적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함
역할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거나 도덕 원리의 근거를 제시함
주요 주제들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등 예)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② 실천 윤리학

의미	<u>다양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에 적용하는 윤리학</u>
목적	이론 윤리학을 적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
역할	• 여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해결책을 모색함 예) 생명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리학과 생명 과학, 통계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함 • 학제적^② 성격: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함께 탐구함 • 실천적 성격: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활용하여 삶의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 주제들	생태계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 예)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

출제 2026 대비 수능 1번
2026 대비 9월 모평 1번
2026 대비 6월 모평 1번

- ★ 6월은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9월은 이론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수능은 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① 윤리의 의미

동양	인간 집단이나 무리[倫]와 이치나 도리[理]가 합쳐진 말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뜻함
서양	그리스어 '에토스(ethos)'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 개인의 성품을 뜻함

② 학제적

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걸친 학문상의 영역 및 그와 같은 영역의 연구에 관련된 것

❁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비교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 이론 윤리학 —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 실천 윤리학 —

➡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실천 윤리학과 차이가 있다.

➡ 실천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론 윤리학과 차이가 있다.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시오.

- ① 이론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할 것을 강조한다. (○, ×)
- ②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 ×)
- ③ 이론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강조한다. (○, ×)
- ④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⑤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강조한다. (○, ×)
- ⑥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
- ⑦ 실천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한다. (○, ×)
- ⑧ 규범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는다. (○, ×)
- ⑨ 기술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 ×)
- ⑩ 기술 윤리학은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⑪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 (○, ×)
- ⑫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 ×)
- ⑬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간과한다. (○, ×)
- ⑭ 메타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 ×)
- ⑮ 메타 윤리학은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심을 갖는다. (○, ×)
- ⑯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강조한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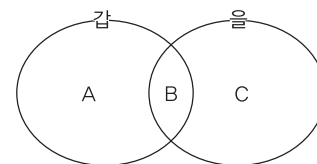
[보기]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성과 가족 윤리	평화와 공존 윤리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 ① '성의 상품화는 허용할 수 있는가?'는 ()에 해당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 ②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 중심에서 동물, 생명,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가?'는 ()에 해당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 ③ ()은/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④ ()은/는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
- ⑤ ()은/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 ⑥ ()은/는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03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시오.

[갑: 메타 윤리학, 을: 기술 윤리학]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① 도덕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A / B / C)
- ②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A / B / C)
- ③ 특정 시대의 관습, 사회 규범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A / B / C)
- ④ 도덕규범의 현실적 적용과 구체적 대안 제시를 경시한다. (A / B / C)

정답

01 ① ×(기술 윤리학) ② ×(실천 윤리학) ③ ○ ④ ○ ⑤ ○ ⑥ ×(강조함) ⑦ ○ ⑧ ×(메타 윤리학) ⑨ ×(이론 윤리학) ⑩ ○ ⑪ ○ ⑫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강조함) ⑬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강조함) ⑭ ×(실천 윤리학) ⑮ ○ ⑯ ○

02 ① 성과 가족 윤리 ② 환경 윤리 ③ 이론 윤리학
④ 기술 윤리학 ⑤ 실천 윤리학 ⑥ 메타 윤리학

03 ① C ② A ③ C ④ B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QUESTION

A

A01 *** 2026 대비 수능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학제적 연구 방법을 통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도덕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적 관행들을 경험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 ② (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③ (나): ‘옳음’, ‘그름’과 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④ (나): 올바른 삶을 위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A02 *** 2026 대비 9월 모평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 규범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 근거가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나) 윤리학은 여러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조사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① (가): 특정 사회의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③ (나): 도덕 명제의 논리 구조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④ (나): 도덕 이론을 적용하여 실제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관행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하여 서술하는 것이다.

A03 *** 2026 대비 6월 모평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추론의 규칙과 절차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다양한 관련 학문을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판단의 규범적 근거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현상을 경험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 ③ (나): 도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 ④ (나):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가치 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 명제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A04 *** 2025 실시 10월 학평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각 문화권의 도덕적 관행을 경험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도덕적 관행의 발생에 관한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해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규범적 판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명제에 사용되는 언어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다.
- ③ (나):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 ④ (나): 도덕 추론의 타당성을 가치중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도덕적 관행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베카리아와 칸트의 고정적 정의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뒤 <보기>에서 적절한 선지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4 대비 9월 모평 9

갑: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보기]

-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 갑: 일반 의사, 사회 계약
• 을: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정언 명령
- [발상]**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 [KEY]**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와 지속도 모두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 갑은 법이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사형은 1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베카리아이다.
- 베카리아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 중 최소한의 것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의사를 수립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갖는 생명은 양도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 을은 형벌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법칙은 일종의 정언 명령이라고 본 칸트이다.
- 칸트는 형벌이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2의 대가로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정의가 요구하는 바이자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정언 명령이다.

step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이 <보기>의 ㄱ~ㄹ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 갑(베카리아)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형벌은 인간의 정신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면서도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고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런데 형벌의 3보다 4가 인간의 정신에 더 큰 효과를 끼친다. 강력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형벌보다는 미약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고통을 제공하는 형벌이 더 큰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사형보다 5이 인간 정신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 갑(베카리아)은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보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산출한다고 본다. 범죄자를 구경하는 시민들은 범죄자가 순간마다 겪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며 범죄자의 미래가 끔찍한 고통으로 채워질 것을 떠올린다. 반면, 범죄자는 눈앞의 고통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 을(칸트)은 도덕적 인격으로서 인간이 이성으로 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범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약속을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형벌은 범죄자에게 무조건 부과되어야 하는 정언 명령이자 도덕적 선이 된다.
- 범죄자는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형벌로 고통받겠지만, 동시에 그의 존엄성이 실현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인격으로서 행위했기 때문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갑(베카리아)은 사형이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력의 측면에서도 종신 노역형보다 열등하다고 본다. 물론 사형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줌으로써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 을(칸트)은 형벌이 범죄자 자신이나 사회적 선을 위한 한낱 6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욕했으므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벌의 정도는 범죄 행위에 7해야 한다. 따라서 살인자의 살인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오직 사형뿐이다.

∴ 정답은 ③ ㄴ, ㄹ이다.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베카리아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형벌의 범죄 억제력은 강도와 지속도 모두에서 나온다고 보았다는 베카리아의 입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설 2, 3,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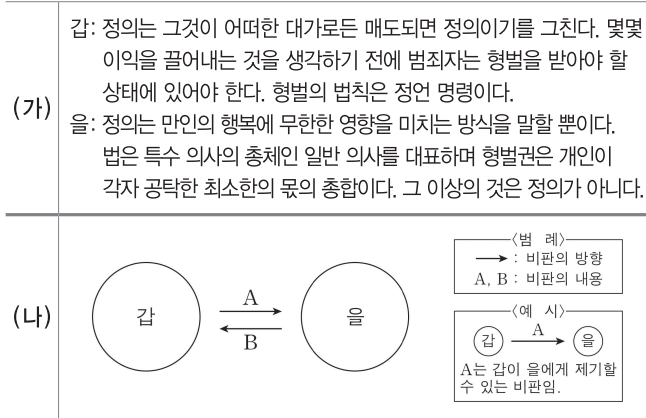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FOR THE SECOND CLASS LEVEL

L34 ★ 고난도 2026 대비 9월 모평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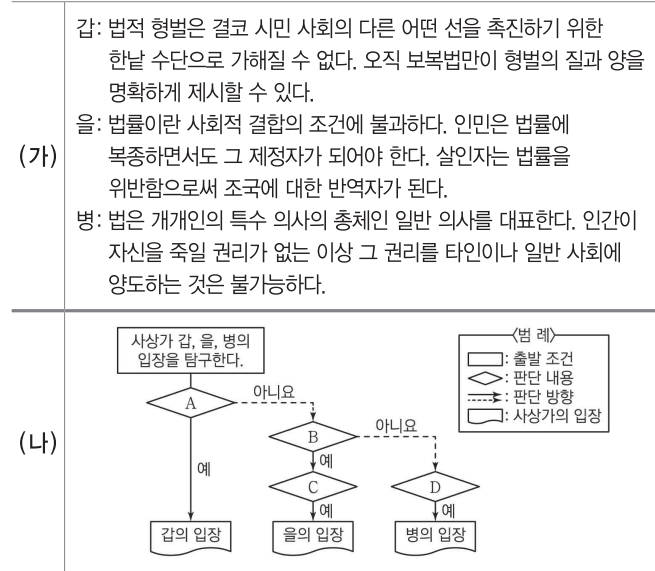


- ① A: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은 형벌로써 억제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B: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함을 간과한다.
- ④ B: 범죄의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됨을 간과한다.
- ⑤ B: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부과해야 함을 간과한다.

L35 ★ 고난도 2025 실시 7월 학평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A: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는 사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가?
- ㄴ. B: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가?
- ㄷ. C: 사형은 살인자가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인가?
- ㄹ. D: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칸트, 싱어, 레오폴드의 자연관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제시문 (가)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나)의 그림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4 대비 수능 15

갑: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에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을: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병: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동물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 갑: 고통에 대한 공감에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
 - 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
 - 병: 대지, 생명 공동체
- 발상
-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레오폴드이다.
- KEY
- 싱어는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지 않은 식물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문제 풀이 순서]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 갑은 동물을 확대하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어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칸트이다.
- 을은 '1' 고려의 원리'에 따라 한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싱어이다.
- 병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하는 행위를 옳다고 본 레오폴드이다.

step 2 <보기>의 내용이 (나) 그림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보기 분석]

ㄱ. A: 동물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 갑(칸트)은 동물 확대가 인간의 자신에 대한 2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간접적 의무를 위반한다고 본다. 동물 확대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 을(싱어)은 동물 확대 금지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동물이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3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물 확대 금지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 ㄱ은 갑(칸트)만이 긍정하므로 A에 해당한다.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을(싱어)은 4을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으로 본다.
- 병(레오폴드)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 ㄴ은 갑(칸트), 을(싱어), 병(레오폴드)이 모두 부정하므로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태계 자체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 ㄷ은 병(레오폴드)만이 긍정하므로 C에 해당한다.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렇지 못한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한 5이 라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 정답은 ② ㄱ, ㄷ이다.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자가 인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으로 보았음을 숙지해야 한다.

문단 9 문단 10 문단 11 문단 12 문단 13 문단 14 문단 15 문단 16 문단 17 문단 18 문단 19 문단 20 문단 21 문단 22 문단 23 문단 24 문단 25 문단 26 문단 27 문단 28 문단 29 문단 30 문단 31 문단 32 문단 33 문단 34 문단 35 문단 36 문단 37 문단 38 문단 39 문단 40 문단 41 문단 42 문단 43 문단 44 문단 45 문단 46 문단 47 문단 48 문단 49 문단 50 문단 51 문단 52 문단 53 문단 54 문단 55 문단 56 문단 57 문단 58 문단 59 문단 60 문단 61 문단 62 문단 63 문단 64 문단 65 문단 66 문단 67 문단 68 문단 69 문단 70 문단 71 문단 72 문단 73 문단 74 문단 75 문단 76 문단 77 문단 78 문단 79 문단 80 문단 81 문단 82 문단 83 문단 84 문단 85 문단 86 문단 87 문단 88 문단 89 문단 90 문단 91 문단 92 문단 93 문단 94 문단 95 문단 96 문단 97 문단 98 문단 99 문단 100 문단 101 문단 102 문단 103 문단 104 문단 105 문단 106 문단 107 문단 108 문단 109 문단 110 문단 111 문단 112 문단 113 문단 114 문단 115 문단 116 문단 117 문단 118 문단 119 문단 120 문단 121 문단 122 문단 123 문단 124 문단 125 문단 126 문단 127 문단 128 문단 129 문단 130 문단 131 문단 132 문단 133 문단 134 문단 135 문단 136 문단 137 문단 138 문단 139 문단 140 문단 141 문단 142 문단 143 문단 144 문단 145 문단 146 문단 147 문단 148 문단 149 문단 150 문단 151 문단 152 문단 153 문단 154 문단 155 문단 156 문단 157 문단 158 문단 159 문단 160 문단 161 문단 162 문단 163 문단 164 문단 165 문단 166 문단 167 문단 168 문단 169 문단 170 문단 171 문단 172 문단 173 문단 174 문단 175 문단 176 문단 177 문단 178 문단 179 문단 180 문단 181 문단 182 문단 183 문단 184 문단 185 문단 186 문단 187 문단 188 문단 189 문단 190 문단 191 문단 192 문단 193 문단 194 문단 195 문단 196 문단 197 문단 198 문단 199 문단 200 문단 201 문단 202 문단 203 문단 204 문단 205 문단 206 문단 207 문단 208 문단 209 문단 210 문단 211 문단 212 문단 213 문단 214 문단 215 문단 216 문단 217 문단 218 문단 219 문단 220 문단 221 문단 222 문단 223 문단 224 문단 225 문단 226 문단 227 문단 228 문단 229 문단 230 문단 231 문단 232 문단 233 문단 234 문단 235 문단 236 문단 237 문단 238 문단 239 문단 240 문단 241 문단 242 문단 243 문단 244 문단 245 문단 246 문단 247 문단 248 문단 249 문단 250 문단 251 문단 252 문단 253 문단 254 문단 255 문단 256 문단 257 문단 258 문단 259 문단 260 문단 261 문단 262 문단 263 문단 264 문단 265 문단 266 문단 267 문단 268 문단 269 문단 270 문단 271 문단 272 문단 273 문단 274 문단 275 문단 276 문단 277 문단 278 문단 279 문단 280 문단 281 문단 282 문단 283 문단 284 문단 285 문단 286 문단 287 문단 288 문단 289 문단 290 문단 291 문단 292 문단 293 문단 294 문단 295 문단 296 문단 297 문단 298 문단 299 문단 300 문단 301 문단 302 문단 303 문단 304 문단 305 문단 306 문단 307 문단 308 문단 309 문단 310 문단 311 문단 312 문단 313 문단 314 문단 315 문단 316 문단 317 문단 318 문단 319 문단 320 문단 321 문단 322 문단 323 문단 324 문단 325 문단 326 문단 327 문단 328 문단 329 문단 330 문단 331 문단 332 문단 333 문단 334 문단 335 문단 336 문단 337 문단 338 문단 339 문단 340 문단 341 문단 342 문단 343 문단 344 문단 345 문단 346 문단 347 문단 348 문단 349 문단 350 문단 351 문단 352 문단 353 문단 354 문단 355 문단 356 문단 357 문단 358 문단 359 문단 360 문단 361 문단 362 문단 363 문단 364 문단 365 문단 366 문단 367 문단 368 문단 369 문단 370 문단 371 문단 372 문단 373 문단 374 문단 375 문단 376 문단 377 문단 378 문단 379 문단 380 문단 381 문단 382 문단 383 문단 384 문단 385 문단 386 문단 387 문단 388 문단 389 문단 390 문단 391 문단 392 문단 393 문단 394 문단 395 문단 396 문단 397 문단 398 문단 399 문단 400 문단 401 문단 402 문단 403 문단 404 문단 405 문단 406 문단 407 문단 408 문단 409 문단 410 문단 411 문단 412 문단 413 문단 414 문단 415 문단 416 문단 417 문단 418 문단 419 문단 420 문단 421 문단 422 문단 423 문단 424 문단 425 문단 426 문단 427 문단 428 문단 429 문단 430 문단 431 문단 432 문단 433 문단 434 문단 435 문단 436 문단 437 문단 438 문단 439 문단 440 문단 441 문단 442 문단 443 문단 444 문단 445 문단 446 문단 447 문단 448 문단 449 문단 450 문단 451 문단 452 문단 453 문단 454 문단 455 문단 456 문단 457 문단 458 문단 459 문단 460 문단 461 문단 462 문단 463 문단 464 문단 465 문단 466 문단 467 문단 468 문단 469 문단 470 문단 471 문단 472 문단 473 문단 474 문단 475 문단 476 문단 477 문단 478 문단 479 문단 480 문단 481 문단 482 문단 483 문단 484 문단 485 문단 486 문단 487 문단 488 문단 489 문단 490 문단 491 문단 492 문단 493 문단 494 문단 495 문단 496 문단 497 문단 498 문단 499 문단 500 문단 501 문단 502 문단 503 문단 504 문단 505 문단 506 문단 507 문단 508 문단 509 문단 510 문단 511 문단 512 문단 513 문단 514 문단 515 문단 516 문단 517 문단 518 문단 519 문단 520 문단 521 문단 522 문단 523 문단 524 문단 525 문단 526 문단 527 문단 528 문단 529 문단 530 문단 531 문단 532 문단 533 문단 534 문단 535 문단 536 문단 537 문단 538 문단 539 문단 540 문단 541 문단 542 문단 543 문단 544 문단 545 문단 546 문단 547 문단 548 문단 549 문단 550 문단 551 문단 552 문단 553 문단 554 문단 555 문단 556 문단 557 문단 558 문단 559 문단 560 문단 561 문단 562 문단 563 문단 564 문단 565 문단 566 문단 567 문단 568 문단 569 문단 570 문단 571 문단 572 문단 573 문단 574 문단 575 문단 576 문단 577 문단 578 문단 579 문단 580 문단 581 문단 582 문단 583 문단 584 문단 585 문단 586 문단 587 문단 588 문단 589 문단 590 문단 591 문단 592 문단 593 문단 594 문단 595 문단 596 문단 597 문단 598 문단 599 문단 600 문단 601 문단 602 문단 603 문단 604 문단 605 문단 606 문단 607 문단 608 문단 609 문단 610 문단 611 문단 612 문단 613 문단 614 문단 615 문단 616 문단 617 문단 618 문단 619 문단 620 문단 621 문단 622 문단 623 문단 624 문단 625 문단 626 문단 627 문단 628 문단 629 문단 630 문단 631 문단 632 문단 633 문단 634 문단 635 문단 636 문단 637 문단 638 문단 639 문단 640 문단 641 문단 642 문단 643 문단 644 문단 645 문단 646 문단 647 문단 648 문단 649 문단 650 문단 651 문단 652 문단 653 문단 654 문단 655 문단 656 문단 657 문단 658 문단 659 문단 660 문단 661 문단 662 문단 663 문단 664 문단 665 문단 666 문단 667 문단 668 문단 669 문단 670 문단 671 문단 672 문단 673 문단 674 문단 675 문단 676 문단 677 문단 678 문단 679 문단 680 문단 681 문단 682 문단 683 문단 684 문단 685 문단 686 문단 687 문단 688 문단 689 문단 690 문단 691 문단 692 문단 693 문단 694 문단 695 문단 696 문단 697 문단 698 문단 699 문단 700 문단 701 문단 702 문단 703 문단 704 문단 705 문단 706 문단 707 문단 708 문단 709 문단 710 문단 711 문단 712 문단 713 문단 714 문단 715 문단 716 문단 717 문단 718 문단 719 문단 720 문단 721 문단 722 문단 723 문단 724 문단 725 문단 726 문단 727 문단 728 문단 729 문단 730 문단 731 문단 732 문단 733 문단 734 문단 735 문단 736 문단 737 문단 738 문단 739 문단 740 문단 741 문단 742 문단 743 문단 744 문단 745 문단 746 문단 747 문단 748 문단 749 문단 750 문단 751 문단 752 문단 753 문단 754 문단 755 문단 756 문단 757 문단 758 문단 759 문단 760 문단 761 문단 762 문단 763 문단 764 문단 765 문단 766 문단 767 문단 768 문단 769 문단 770 문단 771 문단 772 문단 773 문단 774 문단 775 문단 776 문단 777 문단 778 문단 779 문단 780 문단 781 문단 782 문단 783 문단 784 문단 785 문단 786 문단 787 문단 788 문단 789 문단 790 문단 791 문단 792 문단 793 문단 794 문단 795 문단 796 문단 797 문단 798 문단 799 문단 800 문단 801 문단 802 문단 803 문단 804 문단 805 문단 806 문단 807 문단 808 문단 809 문단 810 문단 811 문단 812 문단 813 문단 814 문단 815 문단 816 문단 817 문단 818 문단 819 문단 820 문단 821 문단 822 문단 823 문단 824 문단 825 문단 826 문단 827 문단 828 문단 829 문단 830 문단 831 문단 832 문단 833 문단 834 문단 835 문단 836 문단 837 문단 838 문단 839 문단 840 문단 841 문단 842 문단 843 문단 844 문단 845 문단 846 문단 847 문단 848 문단 849 문단 850 문단 851 문단 852 문단 853 문단 854 문단 855 문단 856 문단 857 문단 858 문단 859 문단 860 문단 861 문단 862 문단 863 문단 864 문단 865 문단 866 문단 867 문단 868 문단 869 문단 870 문단 871 문단 872 문단 873 문단 874 문단 875 문단 876 문단 877 문단 878 문단 879 문단 880 문단 881 문단 882 문단 883 문단 884 문단 885 문단 886 문단 887 문단 888 문단 889 문단 890 문단 891 문단 892 문단 893 문단 894 문단 895 문단 896 문단 897 문단 898 문단 899 문단 900 문단 901 문단 902 문단 903 문단 904 문단 905 문단 906 문단 907 문단 908 문단 909 문단 910 문단 911 문단 912 문단 913 문단 914 문단 915 문단 916 문단 917 문단 918 문단 919 문단 920 문단 921 문단 922 문단 923 문단 924 문단 925 문단 926 문단 927 문단 928 문단 929 문단 930 문단 931 문단 932 문단 933 문단 934 문단 935 문단 936 문단 937 문단 938 문단 939 문단 940 문단 941 문단 942 문단 943 문단 944 문단 945 문단 946 문단 947 문단 948 문단 949 문단 950 문단 951 문단 952 문단 953 문단 954 문단 955 문단 956 문단 957 문단 958 문단 959 문단 960 문단 961 문단 962 문단 963 문단 964 문단 965 문단 966 문단 967 문단 968 문단 969 문단 970 문단 971 문단 972 문단 973 문단 974 문단 975 문단 976 문단 977 문단 978 문단 979 문단 980 문단 981 문단 982 문단 983 문단 984 문단 985 문단 986 문단 987 문단 988 문단 989 문단 990 문단 991 문단 992 문단 993 문단 994 문단 995 문단 996 문단 997 문단 998 문단 999 문단 1000 문단 1001 문단 1002 문단 1003 문단 1004 문단 1005 문단 1006 문단 1007 문단 1008 문단 1009 문단 1010 문단 1011 문단 1012 문단 1013 문단 1014 문단 1015 문단 1016 문단 1017 문단 1018 문단 1019 문단 1020 문단 1021 문단 1022 문단 1023 문단 1024 문단 1025 문단 1026 문단 1027 문단 1028 문단 1029 문단 1030 문단 1031 문단 1032 문단 1033 문단 1034 문단 1035 문단 1036 문단 1037 문단 1038 문단 1039 문단 1040 문단 1041 문단 1042 문단 1043 문단 1044 문단 1045 문단 1046 문단 1047 문단 1048 문단 1049 문단 1050 문단 1051 문단 1052 문단 1053 문단 1054 문단 1055 문단 1056 문단 1057 문단 1058 문단 1059 문단 1060 문단 1061 문단 1062 문단 1063 문단 1064 문단 1065 문단 1066 문단 1067 문단 1068 문단 1069 문단 1070 문단 1071 문단 1072 문단 1073 문단 1074 문단 1075 문단 1076 문단 1077 문단 1078 문단 1079 문단 1080 문단 1081 문단 1082 문단 1083 문단 1084 문단 1085 문단 1086 문단 1087 문단 1088 문단 1089 문단 1090 문단 1091 문단 1092 문단 1093 문단 1094 문단 1095 문단 1096 문단 1097 문단 1098 문단 1099 문단 1100 문단 1101 문단 1102 문단 1103 문단 1104 문단 1105 문단 1106 문단 1107 문단 1108 문단 1109 문단 1110 문단 1111 문단 1112 문단 1113 문단 1114 문단 1115 문단 1116 문단 1117 문단 1118 문단 1119 문단 1120 문단 1121 문단 1122 문단 1123 문단 1124 문단 1125 문단 1126 문단 1127 문단 1128 문단 1129 문단 1130 문단 1131 문단 1132 문단 1133 문단 1134 문단 1135 문단 1136 문단 1137 문단 1138 문단 1139 문단 1140 문단 1141 문단 1142 문단 1143 문단 1144 문단 1145 문단 1146 문단 1147 문단 1148 문단 1149 문단 1150 문단 1151 문단 1152 문단 1153 문단 1154 문단 1155 문단 1156 문단 1157 문단 1158 문단 1159 문단 1160 문단 1161 문단 1162 문단 1163 문단 1164 문단 1165 문단 1166 문단 1167 문단 1168 문단 1169 문단 1170 문단 1171 문단 1172 문단 1173 문단 1174 문단 1175 문단 1176 문단 1177 문단 1178 문단 1179 문단 1180 문단 1181 문단 1182 문단 1183 문단 1184 문단 1185 문단 1186 문단 1187 문단 1188 문단 1189 문단 1190 문단 1191 문단 1192 문단 1193 문단 1194 문단 1195 문단 1196 문단 1197 문단 1198 문단 1199 문단 1200 문단 1201 문단 1202 문단 1203 문단 1204 문단 1205 문단 1206 문단 1207 문단 1208 문단 1209 문단 1210 문단 1211 문단 1212 문단 1213 문단 1214 문단 1215 문단 1216 문단 1217 문단 1218 문단 1219 문단 1220 문단 1221 문단 1222 문단 1223 문단 1224 문단 1225 문단 1226 문단 1227 문단 1228 문단 1229 문단 1230 문단 1231 문단 1232 문단 1233 문단 1234 문단 1235 문단 1236 문단 1237 문단 1238 문단 1239 문단 1240 문단 1241 문단 1242 문단 1243 문단 1244 문단 1245 문단 1246 문단 1247 문단 1248 문단 1249 문단 1250 문단 1251 문단 1252 문단 1253 문단 1254 문단 1255 문단 1256 문단 1257 문단 1258 문단 1259 문단 1260 문단 1261 문단 1262 문단 1263 문단 1264 문단 1265 문단 1266 문단 1267 문단 1268 문단 1269 문단 1270 문단 1271 문단 1272 문단 1273 문단 1274 문단 1275 문단 1276 문단 1277 문단 1278 문단 1279 문단 1280 문단 1281 문단 1282 문단 1283 문단 1284 문단 1285 문단 1286 문단 1287 문단 1288 문단 1289 문단 1290 문단 1291 문단 1292 문단 1293 문단 1294 문단 1295 문단 1296 문단 1297 문단 1298 문단 1299 문단 1300 문단 1301 문단 1302 문단 1303 문단 1304 문단 1305 문단 1306 문단 1307 문단 1308 문단 1309 문단 1310 문단 1311 문단 1312 문단 1313 문단 1314 문단 1315 문단 1316 문단 1317 문단 1318 문단 1319 문단 1320 문단 1321 문단 1322 문단 1323 문단 1324 문단 1325 문단 1326 문단 1327 문단 1328 문단 1329 문단 1330 문단 1331 문단 1332 문단 1333 문단 1334 문단 1335 문단 1336 문단 1337 문단 1338 문단 1339 문단 1340 문단 1341 문단 1342 문단 1343 문단 1344 문단 1345 문단 1346 문단 1347 문단 1348 문단 1349 문단 1350 문단 1351 문단 1352 문단 1353 문단 1354 문단 1355 문단 1356 문단 1357 문단 1358 문단 1359 문단 1360 문단 1361 문단 1362 문단 1363 문단 1364 문단 1365 문단 1366 문단 1367 문단 1368 문단 1369 문단 1370 문단 1371 문단 1372 문단 1373 문단 1374 문단 1375 문단 1376 문단 1377 문단 1378 문단 1379 문단 1380 문단 1381 문단 1382 문단 1383 문단 1384 문단 1385 문단 1386 문단 1387 문단 1388 문단 1389 문단 1390 문단 1391 문단 1392 문단 1393 문단 1394 문단 1395 문단 1396 문단 1397 문단 1398 문단 1399 문단 1400 문단 1401 문단 1402 문단 1403 문단 1404 문단 1405 문단 1406 문단 1407 문단 1408 문단 1409 문단 1410 문단 1411 문단 1412 문단 1413 문단 1414 문단 1415 문단 1416 문단 1417 문단 1418 문단 1419 문단 1420 문단 1421 문단 1422 문단 1423 문단 1424 문단 1425 문단 1426 문단 1427 문단 1428 문단 1429 문단 1430 문단 1431 문단 1432 문단 1433 문단 1434 문단 1435 문단 1436 문단 1437 문단 1438 문단 1439 문단 1440 문단 1441 문단 1442 문단 1443 문단 1444 문단 1445 문단 1446 문단 1447 문단 1448 문단 1449 문단 1450 문단 1451 문단 1452 문단 1453 문단 1454 문단 1455 문단 1456 문단 1457 문단 1458 문단 1459 문단 1460 문단 1461 문단 1462 문단 1463 문단 1464 문단 1465 문단 1466 문단 1467 문단 1468 문단 1469 문단 1470 문단 1471 문단 1472 문단 1473 문단 1474 문단 1475 문단 1476 문단 1477 문단 1478 문단 1479 문단 1480 문단 1481 문단 1482 문단 1483 문단 1484 문단 1485 문단 1486 문단 1487 문단 1488 문단 1489 문단 1490 문단 1491 문단 1492 문단 1493 문단 1494 문단 1495 문단 1496 문단 1497 문단 1498 문단 1499 문단 1500 문단 1501 문단 1502 문단 1503 문단 1504 문단 1505 문단 1506 문단 1507 문단 1508 문단 1509 문단 1510 문단 1511 문단 1512 문단 1513 문단 1514 문단 1515 문단 1516 문단 1517 문단 1518 문단 1519 문단 1520 문단 1521 문단 1522 문단 1523 문단 1524 문단 1525 문단 1526 문단 1527 문단 1528 문단 1529 문단 1530 문단 1531 문단 1532 문단 1533 문단 1534 문단 1535 문단 1536 문단 1537 문단 1538 문단 1539 문단 1540 문단 1541 문단 1542 문단 1543 문단 1544 문단 1545 문단 1546 문단 1547 문단 1548 문단 1549 문단 1550 문단 1551 문단 15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FOR THE FIRST CLASS LEVEL

Q30 ★1등급 대비 2026 대비 6월 모평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고유한 선을 고유한 방식으로 추구하는 유일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대지가 단지 흙은 아니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먹이 사슬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살아 있는 통로이다. 병: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원리를 우리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자기 행동을 일관성 있게 만들 수 있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식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ㄴ. B: 개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만이 권리를 지닐 수 있다.
- ㄷ. C: 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는 간접적으로만 성립할 수 있다.
- ㄹ. D: 인간 아닌 동물 중 인간에 대한 의무에 귀속되지 않는 의무의 대상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Q31 ★1등급 대비 2025 실시 5월 학평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어떤 개체가 믿음, 지각, 기억, 개체로서의 복리 등을 가질 경우, 그 개체는 삶의 주체가 된다. 삶의 주체는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을: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병: 인류는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지 윤리는 인류가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하여 존중할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ㄴ. B: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ㄷ. C: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ㄹ. D: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생활과 윤리 등급컷

❖ 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회 [2025년 실시 3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2	69
2	36	63
3	31	58
4	25	52
5	19	47
6	14	42
7	10	38
8	6	34

6회 [2025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7	64
2	46	62
3	42	60
4	35	54
5	27	48
6	18	41
7	11	35
8	9	34

2회 [2025년 실시 5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6	68
2	39	62
3	35	58
4	30	54
5	23	47
6	16	41
7	11	36
8	8	34

7회 [2026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66
2	41	64
3	36	59
4	30	54
5	22	47
6	14	40
7	11	37
8	7	34

3회 [2025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7
2	40	63
3	35	58
4	30	54
5	22	47
6	14	40
7	11	37
8	7	33

8회 [2025년 실시 10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50	65
2	47	62
3	44	60
4	38	55
5	29	48
6	22	42
7	15	36
8	10	32

4회 [2026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69
2	39	64
3	32	58
4	27	53
5	21	47
6	14	41
7	10	37
8	8	35

9회 [2025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1	68
2	36	68
3	31	58
4	26	53
5	19	46
6	14	41
7	11	38
8	7	34

5회 [2025년 실시 7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6	69
2	40	64
3	33	58
4	26	52
5	20	47
6	13	41
7	10	38
8	7	36

10회 [2026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7
2	41	63
3	36	59
4	30	53
5	23	47
6	16	41
7	11	37
8	8	47



★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제한시간: 30분]

- 01회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 02회 2025 실시 5월 학력평가
- 03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 04회 2026 대비 6월 모의평가
- 05회 2025 실시 7월 학력평가
- 06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 07회 2026 대비 9월 모의평가
- 08회 2025 실시 10월 학력평가
- 09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 10회 2026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회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정답 및 해설 487~489p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에 의한 명예 훼손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 해결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바람직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윤리 원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바람직한’, ‘윤리’ 등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어야 한다.

- ① (가): 도덕 현상의 인과를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②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이다.
 ④ (나):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진인(眞人)은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며 삶을 기뻐하지도 죽음을 거부하려 들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 을: 현자(賢者)는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영혼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원자로 흩어져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 ① 갑: 만물 간에 우열이 있듯이 삶과 죽음 간에도 우열이 있다.
 ② 갑: 예법(禮法)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③ 을: 영혼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들은 죽음을 계기로 소멸한다.
 ④ 을: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즐거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⑤ 갑과 을: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부조화와 나쁜 리듬은 나쁜 성품을 닮기에 국가는 작품들을 통해 우아한 것들을 추구하는 장인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들의 작품을 통해 젊은이들은 이성(理性)의 아름다움을 닮게 되고, 성품이 이성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 신이 만든 ‘침상의 원형’을 보고 목수가 침상을 만들고, 목수가 만든 침상을 모방하여 화가가 침상을 그린다. 화가가 그린 침상은 침상의 원형과 닮았지만 침상의 원형은 아니다.

< 보 기 >

- ㄱ. 선택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ㄴ.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은 금지되어야 한다.
 ㄷ.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이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ㄹ. 예술가의 창작을 통해 아름다움의 원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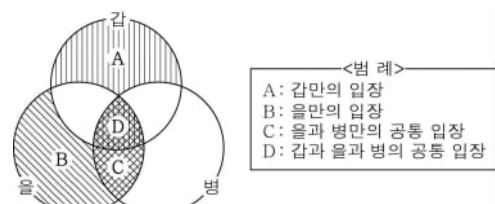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족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

<문제 상황>

‘하루 2만 원으로 행복 찾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고등학생 A는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읽을지, 소문난 맛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지 고민 중이다.

- ① 식욕을 충족시키기보다 책을 읽고 지적인 만족을 느껴세요.
 ②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쾌락의 질을 고려하여 책을 읽으세요.
 ③ 어느 선택이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인지 우선 판단하세요.
 ④ 자연적 경향성을 배제하고 품격 있는 행위인 독서를 하세요.
 ⑤ 질적 쾌락보다 양적 쾌락 증진을 위해 풍족한 식사를 하세요.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을: 인간의 많은 활동들은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시킨다. 병: 나무가 삶과 죽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무는 고유의 선을 지니므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나)	

< 보 기 >

- ㄱ. A: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ㄴ. B: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C: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ㄹ. D: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 문제: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가) 성적 관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일상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악 금지의 원리를 준수하는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나) 성적 관계는 인간의 다른 활동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 학생 답안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가)는 ㉠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보며, ㉡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는 ㉢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 부부간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가)와 (나)는 모두 ㉤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자율 주행 중 위급 상황 발생 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자율 주행 3단계에서는 자율 주행 시스템에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동공 상태와 같은 생체 정보 및 질병 이력과 같은 의료 정보를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하고, 주행이 끝나면 해당 정보들을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야 합니다.

갑: 안전을 위해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 정보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질병 이력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생체 및 의료 정보는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로 활용될 때 사회적 안전이 보장됩니다.

* 비식별 조치: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 ① 비식별 조치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가?
 ②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도 되는가?
 ③ 운전자의 질병 이력을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도 되는가?
 ④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하는가?
 ⑤ 자율 주행 시스템에 운전자의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군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으로 다스려야 한다. 만약 군주가 이익을 밝히면 선비와 백성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나라가 위태로워지게 된다.

을: 무명(無明)을 즐거워하지 않아서 밝음[明]을 일으킨다면, 무명이 소멸되고 행(行)이 소멸된다. 결국에는 생로병사와 근심·슬픔·번민까지 모두 소멸된다.

< 보 기 >

- ㄱ. 갑: 인간은 본성이 선하나 사욕(私欲)을 따르기도 한다.
 ㄴ. 갑: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가 아니다.
 ㄷ. 을: 누구나 계정혜(戒定慧)를 닦으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
 ㄹ. 갑과 을: 친소를 분별하는 사랑은 도(道)에 어긋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신은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召命)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없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을: 사람의 성(性)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여 기준과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 이에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여 경계를 정하고 각자 바라는 것을 충족하게 하였다.

- ① 갑: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다.
 ② 갑: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다.
 ③ 을: 타고난 본성을 함양할 때 구성원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다.
 ④ 을: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지 않아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
 ⑤ 갑과 을: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 안정의 실현이다.

10. 그림은 갑, 을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원한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입니다. 경쟁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 균형은 이룰 수 있습니다.



- ① 갑: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 연맹에 일임해야 한다.
 ② 갑: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 수단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③ 을: 국제 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다.
 ④ 을: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⑤ 갑과 을: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 기구가 존재해야 한다.

모의고사

1회

차례

빠른 정답 찾기 02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04
B 동양 윤리적 접근	25
C 서양 윤리적 접근	45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64

II 생명과 윤리

E 삶의 가치와 윤리	67
F 죽음과 윤리	70
G 생명 윤리	95
H 사랑과 성 윤리	113

III 사회와 윤리

I 직업과 청렴의 윤리	137
J 사회 윤리와 정의	161
K 분배적 정의 [1등급 대비]	167
L 교정적 정의 [고난도 대비]	199
M 국가의 권위와 의무 [고난도 대비]	228
N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고난도 대비]	246

IV 과학과 윤리

O 과학 기술과 윤리	273
P 정보 사회와 윤리	295
Q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등급 대비]	316
R 환경 문제와 윤리	352

V 문화와 윤리

S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355
T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379
U 다문화 사회의 윤리	397
V 종교와 윤리	405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W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417
X 민족 통합의 윤리	430
Y 지구촌 평화의 윤리	440
Z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고난도 대비]	462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5 실시 3월 학력평가	487
02회 2025 실시 5월 학력평가	490
03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493
04회 2026 대비 6월 모의평가	496
05회 2025 실시 7월 학력평가	499
06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502
07회 2026 대비 9월 모의평가	505
08회 2025 실시 10월 학력평가	508
09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511
10회 2026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514



1 직업과 청렴의 윤리

1 01 정답 ② * 칼뱅과 순자의 직업관 [정답률 74%] 2026 대비 수능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신은 사람마다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칼뱅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였다. 그래서 다스리는
단서 소명으로서 직업
사람은 자기 직분을 더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가정의 가장도
자기 의무를 다할 것이다.
- ② 을: 군주가 예의를 숭상하고 법도를 이루면 나라의 표준이 있게 된다.
순자 단서 예에 따른 사회적 직분의 구별
그런 후 사람들의 직분을 분명히 나누고, 하는 일에 질서를
마련하며, 재능과 기술을 따져 능력 있는 이에게 관직을 주면 잘
다스려지지 않을 수가 없다.

- ① 갑: 직업적 성공은 ~~전행에 대한 공로~~를 신에게 인정받은 은총이다.
구원의 증표
- ② 갑: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 중 고귀하지 않은 직업은 있을 수 없다.
신의 명령
- ③ 을: 군자와 소인은 ~~그 본성이 다르기에~~ 직업에 차별이 있어야 한다.
동일한 본성
- ④ 을: 직업은 재능에 따라 정해지므로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
차등적 보상
- ⑤ 갑과 을: 각자의 직업은 천직(天職)이기에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
을: 후천적 노력이 직업에 영향



단서+발상

- ① 단서 • 갑: 소명, 자기 직분을 의욕적으로 수행
• 을: 군주가 예의를 숭상, 직분을 분명히 나눔
- ② 발상 갑은 칼뱅, 을은 순자이다.
- ③ KEY 칼뱅은 직업은 신이 부여한 소명이므로 귀천이 없다고 본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칼뱅: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에 충실해야 함
- 을 순자: 예로써 표준을 세워 직분을 구별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릴 수 있음

| 선택지 분석 |

- ① 갑(칼뱅)은 직업적 성공은 신에게 공로를 인정받아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징표로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 ② 갑(칼뱅)은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은 신의 명령이므로 모두 고귀하다고 본다.
- ③ 을(순자)은 군자와 소인의 본성은 동일하지만 인위적 노력의 정도는 다르므로, 직분에 차별이 생긴다고 본다.
- ④ 을(순자)은 재능과 기술을 고려하여 직업을 나누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칼뱅)은 신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을(순자)은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를 익히지 않으면 서민이 되므로, 후천적인 수양과 노력이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정윤서 | 2026 수능 응시 · 부산 사직여고 졸업

칼뱅은 직업은 소명, 즉 '신의 부르심'이라고 보았기에 직업에 귀천은 없음을 강조했어. 따라서 ②가 적절해.
④에서 순자가 직업을 재능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맞지만, 공적을 따져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는 않아.

1 02 정답 ① * 마르크스와 플라톤의 직업관 [정답률 80%] 2025 실시 10월 학평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는 부를 생산할수록 더 가난해지고,
마르크스 상품을 많이 만들수록 자신은 더 값싼 상품이 된다.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킨다.
단서 노동 소외, 인간 소외(자본주의의 문제점)
- ② 을: 국가 안의 성향이 다른 세 계층이 저마다 제 일을 한다면
플라톤 올바른 국가가 되는 것처럼, 개인의 영혼 안에 있는 부분들이
각자 제 일을 한다면 올바른 사람이 된다.
단서 국가와 개인이 정의롭기 위한 방향

- ① 갑: 생산 수단의 공유는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생산 수단에 종속된 '노동 소외' 비판
- ② 갑: 진정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만들지 않음
- ③ 을: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 보장된 현대 사회의 직업관
- ④ 을: 정의로운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간섭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음
- ⑤ 갑과 을: 계층 간 역할 교환 없이는 이상 사회가 실현될 수 없다.
을: 역할 교환 반대



단서+발상

- ① 단서 • 갑: 소외된 노동은 인간으로부터 그의 본질을 소외시킴
• 을: 세 계층, 각자 제 일을 하면 올바른 사람이 됨
- ② 발상 갑은 마르크스, 을은 플라톤이다.
- ③ KEY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사유화를 노동 소외의 원인으로 본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마르크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분업은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인간 소외 현상과 노동 착취를 발생시킴
- 을 플라톤: 국가 안의 세 계층이 각자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올바른 국가가 됨

| 선택지 분석 |

- ① 갑(마르크스)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급이 결정되는 사회와 생산 수단에 종속된 노동인 '노동 소외'를 비판하였다. ~~공급~~ 이에 생산 수단을 공유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갑(마르크스)은 진정한 노동은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노동자는 진정한 노동 과정에서 자신을 상품으로 인식하지는 않는다.
- ③ 을(플라톤)은 타고난 금·은·철동의 기운 및 성향 등에 따라 직업을 배치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플라톤)은 국가 구성원이 각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사람들이 직분이나 도구를 교환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한다면, 국가는 파멸의 길로 갈 것이다.~~ ~~공급~~
- ⑤ 을(플라톤)은 역할 교환은 이상 사회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본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모든 인간은 본래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정확히 그렸을 때 인간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한다. (단서 카타르시스)
- 을: 어떤 대상을 지성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경험할 때, 그 대상은 예술적으로 경험된다.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美)는 도덕적 선(善)의 상징이 된다. (단서 아름다움의 도덕적 역할 인정)

[보기]

- ㄱ. 갑: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모방을 통해서만 즐거움을 느낀다. (추론을 통해서도 가능)
- ㄴ. 갑: 예술은 자연이 완성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 (예술의 목표)
- ㄷ. 을: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닌다. (서로 다른 영역)
- ㄹ. 갑과 을: 미적 판단의 기준은 주관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을: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자 보편적 판단)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문제+자료 분석]

- 갑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본래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혐오스러운 대상이라도 정확히 그렸을 때 인간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함(카타르시스)
- 을 칸트: 미와 선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보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 유사하며, 미는 도덕성의 상징임

[보기 분석]

- ㄱ. 제시문에서 갑(아리스토텔레스)은 인간은 모방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림 속 사물인지 무엇인지 추론하며 쾌감을 느낀다고 주장하고 있다.
- ㄴ. 갑(아리스토텔레스)은 예술은 자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고 본다. (골백)
- ㄷ. 을(칸트)은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은 형식적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본다.
- ㄹ. 을(칸트)은 인간은 미적 판단의 과정에서 주관 및 주관의 감정에 관계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에 관한 판단은 주관적 판단이다.

* 칸트의 예술관

- 아름다운 것은 도덕적 선의 상징임
-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은 형식적 측면에서 유사함
- 아름다운 것은 감성에서 순수이성으로 나아가는 계기임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갑: 음악[樂]을 비난하는 까닭은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다.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천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천하의 해독(害毒)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서 음악의 이익과 해악 평가)
- 을: 예의[禮]는 모든 것을 따로 구별하나,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性情)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들은 백성을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 화목하게 하였다. (단서 음악의 본성 교화 기능 강조)

[보기]

- ㄱ. 갑: 이로운[利]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한다. (이익 = 율음 [義])
- ㄴ. 을: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한다. (예의도 교화 방법)
- ㄷ. 갑과 을: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갑(목자): 즐거움보다 이익, 을(순자): 즐거움보다 교화)
- ㄹ. 갑과 을: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갑(목자): 음악이 해악 산출, 을(순자): 예에 맞지 않는 음악)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문제+자료 분석]

- 갑 목자: 비록 어떤 음악이 즐거움을 제공하더라도 이익보다 더 많은 해악을 산출한다면 향유해서는 안 됨
- 을 순자: 예악은 각각 구별과 조화를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이기도 함

[보기 분석]

- ㄱ. 갑(목자)은 이익을 곧 율음이라고 보므로 음악이 이롭다면 즐거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음악을 즐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ㄴ. 을(순자)은 예의와 음악 모두 백성의 타고난 성정을 교화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 ㄷ. 갑(목자)은 음악이 백성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익과 손해를 따져 해로운 결과를 낳는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 을(순자)은 음악이 백성을 즐거움으로 인도할 수 있지만 음악이 백성을 빠르게 교화하는가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목자)은 음악이 이로운보다 해악을 산출한다면 사회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 을(순자)은 음악이 도리에 알맞지 않아 백성을 무분별한 즐거움으로 이끈다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함정)

오해 틀렸나?

순자의 입장을 '모든 음악이 사회 혼란의 방지책이다.'로 알고 있었다면 ㄹ을 틀렸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순자는 예에 부합하는 음악과 그렇지 않은 음악을 구분하여 전자는 사회 질서 유지를, 후자는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고 본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평화 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칸트 평화 연맹의 이념 확산을 통한 국제 평화 실현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단서
- ② 을: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
모겐소 단서 권력 균형을 통한 국제 평화 실현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 ① 갑: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념 확산
- ② 갑: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방
- ③ 을: 국가 간의 동맹 없이는 국제 평화의 실현은 가능하지 않다.
가능
- ④ 을: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을 수는 없다.
동일함
- ⑤ 갑과 을: 국가 주권의 제한 없이 국제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갑: 평화 연맹에서 주권 보호,
을: 주권 국가 간 세력 균형

| 문제+자료 분석 |

- 갑 칸트: 평화 연맹의 이념에 따르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국제 사회에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가능성이 커짐
- 을 모겐소: 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국제 정치의 행위자는 권력을 수단으로 삼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선택지 분석 |

- ① 갑(칸트)은 평화 연맹의 이념이 확산되고 평화 연맹에 동참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본다. 합정
- ② 갑(칸트)은 국제법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을(모겐소)은 동맹 외에 분할 통치, 보상, 군비 등을 활용해서도 세력 균형을 통한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을(모겐소)은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본다.
- ⑤ 갑(칸트)은 평화 연맹은 자유로운 국가들 간의 연합이므로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다. 을(모겐소)은 주권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을 통해 국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왜 틀렸나?

‘평화 연맹이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보고 평화 연맹의 참가국이 많아지므로 영원한 평화 실현에 가까워진다고 추론해 ①을 답으로 골랐을 수 있다. 그러나 평화 연맹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국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평화 연맹의 개수가 많아져서 연맹들이 서로 다른 국제법을 갖게 된다면 연맹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칸트 단서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
각국의 자유와 영원한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 ② 을: 이익 공동체도 세력 균형도 없는 곳에서는 국제법이 존재할 수
모겐소 단서 국제관계의 본질은 권력 투쟁
없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 ① 갑: 평화 연맹은 주권국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행사해야 한다.
주권국은 주권을 구현해야 함
- ② 갑: 평화 연맹은 개별 국가를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시켜야 한다.
강제로 복종시키면 안 됨
- ③ 을: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서로 같음
- ④ 을: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군비 경쟁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
군비 경쟁 → 국가 간 경쟁
- ⑤ 갑과 을: 평화 실현을 위한 각국의 무력행사는 항상 정당하다.
갑: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님

💡 단서+발상

- 단서 • 갑: 국가 상호 간의 계약, 평화 연맹
• 을: 세력 균형, 자국의 이익
- 발상 갑은 칸트, 을은 모겐소이다.
- KEY 모겐소는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칸트: 영구 평화는 국가들 상호 간의 계약이 있어야 가능하며,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필요함
- 을 모겐소: 국가는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국제 정치에서 평화 유지는 세력 균형을 통해 가능함

| 선택지 분석 |

- ① 갑(칸트)은 개별 주권국이 공화정체를 유지하면서 주권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며, 이러한 개별 국가 연맹의 확장을 추구한다.
- ② 갑(칸트)은 평화 연맹이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제법에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은 평화 연맹의 존재 이유와 충돌한다고 본다. 영구 평화란 하나의 중심 국가에 의해 주변 국가들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옳
- ③ 을(모겐소)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본질은 권력 투쟁과 자국의 이익 보장으로 동일하다고 본다.
- ④ 을(모겐소)은 세력 균형은 국제 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세력 균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군비 경쟁이 과열되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칸트)은 과도기 상태에서의 방어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Z 03 정답 ③ * 해외 원조에 대한 싱어와 노직의 입장

[정답률 53%] 2026 대비 수능 19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빈민을 돕기 위한 기준은 수입의 단 1%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을: 특정 생활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같은 사회가 있다면, 누구든 거기로 갈 것이다.

(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갑: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빈민을 돕기 위한 기준은 수입의 단 1%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을: 특정 생활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같은 사회가 있다면, 누구든 거기로 갈 것이다.

(나)

갑: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빈민을 돕기 위한 기준은 수입의 단 1%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을: 특정 생활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같은 사회가 있다면, 누구든 거기로 갈 것이다.

(나)

갑: 우리는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빈민을 돕기 위한 기준은 수입의 단 1%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희생 없이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을: 특정 생활수준 이상이라면 빈민을 돕도록 강제하는 사회를 생각해 보자. 그런 강제만 없고 다른 것이 모두 같은 사회가 있다면, 누구든 거기로 갈 것이다.

[보기]

- ㄱ. A: 빈민을 위한 자선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가?
을: 자선은 도덕적 행동
- ㄴ. B: 원조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원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는가?
갑(싱어) 원조 결과 고려
- ㄷ. B: 원조 대상이 받는 혜택이 원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초과해야 하는가?
갑(싱어) 이익 > 손해
- ㄹ. C: 원조 행위는 원조 주체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을: 자발적 원조는 침해 X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갑: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음
을: 개인의 재산 처분은 강제될 수 없음
- (발상) 갑은 싱어, 을은 노직이다.
- (KEY) 노직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선적 성격의 원조는 강제적 원조와 달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싱어): 일정한 생활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소득의 일부를 마땅히 절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에 지출해야 함
- 을(노직): 원조를 강제하는 일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함

| 보기 분석 |

- ㄱ. 갑(싱어)은 빈민을 위한 자선이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산출한다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을(노직)은 빈민을 위한 자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 갑(싱어)은 효과가 없는 원조는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므로 원조 효과가 불확실할 때 원조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고 본다.
- ㄷ. 갑(싱어)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원조가 산출하는 결과적인 이익이 손해보다 커야 한다고 본다.
- ㄹ. 을(노직)은 타인을 위한 원조를 강제하는 정책이나 법률은 개인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원정**



정윤서 | 2026 수능 응시 · 부산 사직여고 졸업

갑은 싱어, 을은 노직이다. 노직은 원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지만, '원조 행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ㄱ과 ㄹ이 틀렸음을 알 수 있어, 현장에서 모든 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소거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니 모르는 선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Z 04 정답 ① *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률 66%] 2024 실시 5월 학평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단서)

갑: 우리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적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단서)

을: 우리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단, 우리가 막으려는 절대 빈곤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 원조의 목표는 고통받는 사회의 정제 개선

→ 원조의 목표는 절대 빈곤의 해소

- ① 갑: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게 인권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다.
롤스 질서 정연한 사회의 특징
- ② 갑: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든 국가가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롤스 무법국가는 원조 대상 X
- ③ 을: 원조 여부를 결정할 때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싱어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함
- ④ 을: 원조의 우선순위는 원조 주체와의 인종적 친화성에 달려 있다.
싱어 국적, 인종 등과 무관하게 시행
- ⑤ 갑과 을: 고통받는 사람들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직접적 목표이다.
갑(롤스): 고통받는 사회의 정제 개선이 직접적 목표

| 문제+자료 분석 |

- 갑(롤스):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인권의 강조는 이러한 과정을 촉진함
- 을(싱어): 원조는 절대 빈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됨

| 선택지 분석 |

- ① 갑(롤스)은 인권에 대한 강조는 통치자에게 국민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원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꼭**
- ② 갑(롤스)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중에서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라고 보지만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③ 을(싱어)은 원조가 산출할 이익이 고통보다 클 때 원조를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때 원조 주체가 겪을 손실과 원조 대상이 얻을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
- ④ 을(싱어)은 원조의 우선순위는 원조가 최대한의 공리를 산출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인종이나 국적에 의해 결정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
- ⑤ 갑(롤스)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을 원조의 직접적인 목표로 본다.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① **갑** 법적 형벌은 결코 시민 사회의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칸트**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단서: 응보주의적 형벌관

② **을** 법률이란 사회적 결합의 조건에 불과하다. 인민은 법률에 복종하면서도 **루소** 그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살인자는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된다. 단서: 살인자는 더 이상 국가 구성원이 아님

③ **병**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인간이 **베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리아**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서: 생명권 양도 불가

(나)

[보기]

ㄱ. **A**: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는 사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가?
갑 ○, 을 ○, 병 ×

ㄴ. **B**: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가?
을 ○, 병 ○

ㄷ. **C**: 사형은 살인자가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인가?
을 ○

ㄹ. **D**: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병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 + 발상

단서

- **갑**: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
- **을**: 인민은 법률 복종자이자 제정자, 살인자는 조국에 대한 반역자
- **병**: 법은 일반 의사를 대표, 생명권은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 불가

발상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다.

KEY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회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형벌은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응보주의적 형벌관을 지향하는 칸트이다.
- 을은 살인자를 조국에 대한 반역자로 바라보는 루소이다.
- 병은 생명권을 타인이나 일반 사회에 양도할 수 없다고 바라본 베카리아이다.

step 2 ㄱ~ㄹ에 대한 각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다.

- **A**의 질문에 갑은 긍정, 을과 병은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B**의 질문에 을은 긍정, 병은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C**의 질문에 을은 긍정하는지 판단한다.
- **D**의 질문에 병은 긍정하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는 사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가?

- 갑(칸트)은 응보주의, 동해 보복의 원리에 따라 사형을 실시함으로써 살인에 대한 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형은 **시민 사회의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이 아니라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함정
 - 을(루소)은 사회계약론자로서 계약 당사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도 희생해야 하며, 살인자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이다.
 - 병(베카리아)은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키므로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공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
- * ㄱ은 A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ㄴ. B: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가?

- 을(루소)은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판단 결과,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사형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 병(베카리아)은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사형의 정당성을 판단했을 때 사형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하고 타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인데, 사형은 종신 노역형보다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사형은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선지였다면 **함정**
- 병(베카리아)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형의 정당성은 사회 계약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가?’라는 선지이므로 병(베카리아)은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 * ㄴ은 B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ㄷ. C: 사형은 살인자가 국가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인가?

- 을(루소)은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체결된다고 본다.
 - 살인자는 자신의 생명도 희생해야 하며,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 살인자는 국가 구성원에서 제외되므로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국외추방형을 부과해야 한다. 즉, 살인자를 죽이는 것과 일반 시민을 죽이는 것은 다르다. 함정
- * ㄷ은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ㄹ. D: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주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병(베카리아)은 ‘일반 예방주의’를 긍정한다. 일반 예방주의란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관점이다.
 - 병(베카리아)은 형벌을 집행하여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인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함정
 - 병(베카리아)이 지향한 형벌인 ‘종신 노역형’은 수형자보다 구경꾼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형벌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구경꾼은 수형자가 당하는 불행한 순간의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 * ㄹ은 D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다.

★ 정답은 ⑤ ㄷ, ㄹ이다.

오해 틀렸나?

③을 고른 학생들은 루소와 베카리아가 사회 계약에 입각한 것이 ‘사형의 정당성 판단’인지 ‘사형의 집행’인지 정확히 분별하지 못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형벌론 ★ **고난도** 핵심 개념

칸트	사형 집행으로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되나 생득적 인격성은 박탈되지 않음
루소	국가의 사형 집행권 인정
베카리아	공리주의, 사회계약론 관점

다음에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적인 정의관으로부터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의 이론은 입헌 민주주의에 대한 법적인 관점을 보충하고 있다. 그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과 민주 체제의 정치적 원리들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합법적인 민주적 권위에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정식화하는 것이다.
→ 롤스

- ①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정의의 원칙
-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도 있음
- ③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가능
- ④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자유에 의한 자유의 제한 가능
- 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가능

단서 + 발상

단서 공공적인 정의관

발상 제시문의 사상가는 롤스다.

KEY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 정의의 원칙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의 사상가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 제시문의 사상가는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을 주장한 롤스다.
- 롤스는 공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며, 비록 시민 불복종이 위법 행위이긴 하지만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인 행위라고 주장한다.

step 2 각 선택지가 사상가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 ①~⑤ 중 롤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선택지를 고른다.

| 선택지 분석 |

①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허용될 수는 없다.

- 롤스는 사회의 기본 구조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규정하는 방식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회의 기본 구조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된다. (골)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 즉 사회 기본 구조를 규제하는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일부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회 기본 구조의 규제 원칙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는다.
- * ①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한다.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는 부정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대체로 질서 정연하지만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이 일어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부정의한 사회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받지 않으므로 시민 불복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 즉,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므로 시민 불복종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라고 해서 그 사회를 부정의한 사회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 * ②는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시민 불복종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는 없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극심한 무질서를 야기하여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것으로 예상될 때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예를 들어 어떤 소수자가 시민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그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의 시민 불복종 행위도 정당화될 것이다. 만약 이들이 동시에 시민 불복종을 벌인다면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어야 한다.
- * ③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 롤스는 기본적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공공질서를 위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특정 기본적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자유의 전체 체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 ④은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헌법에 근거한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롤스는 완전한 절차적 정의는 이상에 불과하므로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도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이라도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다.
- * ⑤는 롤스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은 ①이다.

20 틀렸나?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을 기본적 자유의 무제한적인 보장으로 오해했다면 ④를 답으로 골랐을 수 있다. 그러나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자유를 위한 자유의 제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 고난도 핵심 개념

- 정의의 제1원칙 및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함
- 합법적인 수단 이후에 시행되는 최종적인 대책임
- 정의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 행위의 난립을 제한함

* 롤스의 기본적 자유 ★ 고난도 핵심 개념

- 롤스는 정치적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적 자유,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 등이 기본적 자유에 속한다고 본다.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롤스는 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 정의의 제2원칙에 우선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는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다만, 자유는 오직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덜 광범위한 자유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자유의 전체 체계를 증진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덜 평등한 자유는 더 적은 자유를 가진 이들에게 수용될 수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이익 평등
싱어 고려의 원칙에 따라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서 공리의 원리에 근거한 원조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롤스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다. 단서 질서 정연한 사회 수립 위한 원조

(나)

[보기]

- ㄱ. A: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을(롤스): 인권 실현을 위한 원조 정당화
- ㄴ. B: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절대 빈곤 해소
- ㄷ. B: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
더 큰 이익 위해
- ㄹ. C: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을(롤스): 질서 정연한 체제 수립 위해 필요하다면 가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 + 발상

- 단서 • 갑: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 을: 고통받는 사회,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
- 발상 갑은 싱어, 을은 롤스다.
- 적용 롤스는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극빈자를 구호해야 한다는 싱어다.
- 을은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롤스다.

step 2 ㄱ~ㄹ이 (나)의 A~C와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 수 있는가?

- 갑(싱어)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일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나쁜 일을 방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 누군가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을 절대 빈곤과 같은 나쁜 일을 방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절대 빈곤에 상응할 정도의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원조해야 한다.

- 을(롤스)은 절대 빈곤 해소를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어떤 원조가 절대 빈곤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고통받는 사회로 하여금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라면, 그러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 ㄱ의 내용에 갑(싱어), 을(롤스) 모두 긍정한다.

ㄴ. B: 원조 대상의 기본적 필요 충족은 원조 중단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갑(싱어)은 원조를 통해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한 이들에 대한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원조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소득이 남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ㄴ의 내용에 갑(싱어)은 긍정한다.

ㄷ. B: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는가?

- 갑(싱어)은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소득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 왜냐하면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이용한 쾌락의 증대보다는 그 소득을 이용하여 해소할 수 있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골** 따라서 원조했을 때 원조 대상이 느끼는 고통의 감소 정도가 원조하지 않았을 때 원조 주체가 얻을 쾌락의 정도보다 크다면, 원조 주체의 처지 개선을 유보하고 원조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ㄷ의 내용에 갑(싱어)은 긍정한다.

ㄹ. C: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 을(롤스)은 원조의 궁극적 목적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극심한 불평등으로 인해 원조 대상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러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 ㄹ의 내용에 을(롤스)은 부정한다.

★ 정답은 ③ ㄴ, ㄷ이다.

오해 틀렸나?

①을 고른 학생들은 원조에 대한 싱어의 주장이 원조 주체에게는 손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리주의는 서로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계산하므로, 특정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입을 손해에 비해 다른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얻는 일을 정당화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원조의 목적과 근거

	롤스	싱어
원조 목적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	절대 빈곤의 해소
원조의 도덕적 근거	질서 정연한 만민의 의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박정빈 |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2025년 입학 · 대구 남산고 졸
갑은 싱어, 을은 롤스야. ㄱ은 익숙한 선지였고, 개인적으로 ㄴ이 어려웠는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이기에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낳는 결과를 선택할 것임을 알 수 있어. 같은 맥락으로 ㄷ도 해결할 수 있어.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 정형화된 분배의 원리는 재분배 행위를 필요로 한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에서 재분배는 사실상 사람들의 권리 침해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 **비정형적·역사적 원리에 근거한 분배**

을 : 무지의 배일은 당사자들이 속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할 근거를 차단한다. 이로 인해 특정한 정의관에 대한 만장일치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에 근거한 분배**

(나)

- [보기]
- ㄱ. A: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갑: **정당한 과세 가능**
 - ㄴ. B: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갑: **타인의 처지 악화**
 - ㄷ. C: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을: **고려 O, 계산 X**
 - ㄹ. C: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을: **차등의 원칙은 호혜적 성격을 지님**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소유 권리론
• 을: 무지의 배일

발상 갑은 노직, 을은 롤스다.

KEY 노직은 최소 국가가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본다.

문제 풀이 순서

step 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정형적 분배 원리를 비판하며 소유 권리론을 주장한 노직이다.
- 을은 무지의 배일을 착용한 당사자들이 정의의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본 롤스다.

step 2 ㄱ~ㄹ이 (나)의 A~C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A의 질문에 갑은 긍정, 을은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B의 질문에 갑은 긍정하는지 판단한다.
- C의 질문에 을은 긍정하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과세 정책은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하는가?

- 갑(노직)은 치안 유지, 계약 이행 감시 등 최소 국가의 역할에 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정당한 과세 정책으로 보므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세 정책이 개인의 소유권을 필연적으로 침해한다고 본다.
- 을(롤스)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받은 사회의 기본 제도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본다.
- * ㄱ의 내용에 갑(노직)과 을(롤스) 모두 부정한다.

ㄴ. B: 자기 노동을 통한 취득물의 소유가 부당할 수도 있는가?

- 갑(노직)은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여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당한 소유가 성립한다고 본다.
- 갑(노직)은 교정의 원칙을 제시하며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사기, 강압, 절도와 같은 과오나 잘못에 의한 소유가 발생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 * ㄴ의 내용에 갑(노직)은 긍정한다.

ㄷ. C: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 을(롤스)은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고려하지만, 최소 수혜자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확률 계산에 필요한 지식은 무지의 배일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 * ㄷ의 내용에 을(롤스)은 부정한다.

ㄹ. C: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 을(롤스)은 최초의 평등한 상태에 비해 소득과 부에서의 불평등, 권위와 책임의 정도에서의 차등 등이 존재함으로써 모두의 처지가 나아진다면 그러한 불평등과 차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이러한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합의에 임한다.
- 원초적 계약의 당사자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의 원칙, 즉 차등의 원칙에 합의한다. 이에 따라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도록 분배하려면 모든 사람의 처지는 최초의 평등한 상태보다 개선된다.
- 즉,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분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 * ㄹ의 내용에 을(롤스)은 긍정한다.

★ 정답은 ③ ㄴ, ㄹ이다.

오해 틀렸나?

노직이 국가의 모든 세금 부과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오해했다면 ④를 답으로 골랐을 수 있다. 그러나 노직은 타인의 복지를 위해 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행위를 비판한 것이지, 모든 과세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소유물을 그보다 빈곤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최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 납부는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직의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 ★ 1등급 핵심 개념

-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을 사유화하는 행위에 관한 원리
- 타인의 처지를 악화하지 않는 한, 자신의 노동을 투입한 것을 취득하는 것을 정당화함
- 어떤 사람의 처지가 악화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특정한 사유화에 의해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뜻함 (예: 누군가가 세상에서 마실 수 있는 모든 물을 취득하는 행위는 타인의 처지를 악화시키므로 부당함)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어떤 개체가 믿음, 자각, 기억, 개체로서의 복리 등을 가질 경우, 그 레건 개체는 삶의 주체가 된다. 삶의 주체는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 안 된다. 단서 삶의 주체의 권리 보장

을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테일러 동등하며,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는 체계라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단서 생명체에 대한 존중

병 인류는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지 윤리는 레오폴드 인류가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 자체에 대하여 존중할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단서 대지에 대한 도덕적 고려

(나)

레건과 테일러만의 공통 입장

레건만의 입장

레오폴드만의 입장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의 공통 입장

을

갑

병

<범 레>

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을과 병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ㄴ. B: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테일러), 병(레오폴드) 긍정 경우가 있다.
- ㄷ. C: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병(레오폴드): 생태계 자체가 의무의 대상
- ㄹ. D: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병(레오폴드): 경제적으로만 대하는 태도 비판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 갑: 삶의 주체
 - 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
 - 병: 대지 윤리

발상 갑은 레건,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KEY 레건이나 테일러도 생태계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삶의 주체를 한낱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레건이다.
- 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테일러다.
- 병은 대지 윤리에 근거하여 생명 공동체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레오폴드다.

step 2 ㄱ~ㄹ이 (나)의 A~D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갑(레건)은 일부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삶의 주체라는 점에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다른 동물이나 식물 등의 '모든' 개체가 삶의 주체는 아니므로 갑(레건)은 ㄱ의 내용을 부정할 것이다.
- 을(테일러)은 무생물과 같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개체는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을(테일러)은 ㄱ의 내용을 부정할 것이다.
- 병(레오폴드)은 도덕 무능력자에 속하는 개체들은 대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ㄱ의 내용은 A(레건만의 입장)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ㄴ. B: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을(테일러)은 인간이 생태계에 해를 끼친다면 보상적 정의의 의무에 따라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올)
- 병(레오폴드)은 생태계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 등을 위한 인간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ㄴ의 내용은 B(레오폴드만의 입장)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이 아니다.

ㄷ. C: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갑(레건)은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지,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을(테일러)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별 생명체들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지,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태계 그 자체를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ㄷ의 내용에 갑(레건), 을(테일러)은 긍정, 병(레오폴드)은 부정한다.

ㄹ. D: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갑(레건)은 비록 인간이 삶의 주체를 한낱 자원으로 간주하는 관행을 비판하지만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을(테일러)은 비록 생명체들을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보지만,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일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 병(레오폴드)은 오직 경제적 관점에서만 대지를 이용하는 태도를 비판한다. 그러나 대지를 바라볼 때 윤리적, 심미적 관점을 동반한다면 경제적 관점에서 대지를 이용하는 일은 허용될 수 있다.

* ㄹ의 내용에 갑(레건), 을(테일러), 병(레오폴드) 모두 긍정한다.

★ 정답은 ③ ㄷ, ㄹ이다.

왜 틀렸나?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중 레오폴드만 생태 중심주의에 속하므로 오직 레오폴드만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ㄴ을 옳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도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므로 ㄴ의 내용에 긍정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도덕적 고려의 기준과 범위

★ 1등급 핵심 개념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도덕적 고려의 기준	삶의 주체	생명체	대지 공동체
도덕적 고려의 범위	인간, (일부) 동물	인간, 동물, 식물	인간, 동물, 식물, 흙이나 물 등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이 이성을 지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칸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단서 간접적 의무 준수

을 개별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단서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

병 중 차별주의를 버리고 육식을 멈추면 식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식량을 싱어 제대로 분배하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단서 고통 느끼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

(나)

칸트만의 입장
칸트, 테일러, 싱어의 공통 입장
테일러만의 입장
테일러와 싱어의 공통 입장
병
칸트만의 입장
테일러만의 입장
병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갑(칸트): 간주 가능

ㄴ. B: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단서 인간 이외의 존재

ㄷ.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갑(칸트): 동물에 대한 의무 X

ㄹ. D: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단서 인간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 O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 단서**
- 갑: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 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
 - 병: 중 차별주의, 동물 해방
- 발상**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싱어다.
- 적용**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면서 동시에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동물 학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다고 주장한 칸트다.
- 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테일러다.
- 병은 육식을 줄여서 기아를 없애는 등 동물과 인간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싱어다.

step 2 ㄱ~ㄹ이 (나)의 A~D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 갑(칸트)은 동물과 인간 모두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동물과 달리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즉,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지만, 인간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대우하는 일은 허용된다.

- 을(테일러)은 자연 존중의 태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동물과 인간 모두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동물과 인간 모두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 * ㄱ의 내용은 갑(칸트), 을(테일러), 병(싱어) 모두 부정한다.

ㄴ. B: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 갑(칸트)은 이성을 지니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이성을 지니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지위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한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다고 본다.
- * ㄴ의 내용에 갑(칸트)은 부정, 을(테일러)과 병(싱어)은 긍정한다.

ㄷ.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 갑(칸트)은 인간은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니므로,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동물에 관련한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내재적 가치를 소유한 동물에 대한 의무는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간은 야생동물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지만, 해당 동물의 고유한 선을 증진하는 일부 간섭은 허용될 수 있다.
- 병(싱어)은 특정 상황에서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이익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러한 요구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ㄷ의 내용에 갑(칸트)은 부정, 을(테일러)과 병(싱어)은 긍정한다.

ㄹ. D: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갑(칸트)은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동물과 식물 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성립한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특정 종의 개체 수가 과잉되어 전체 생태계를 망칠 때 일부 개체를 제거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다른 생명체를 위해 특정 생명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한 인간 및 동물과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식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허용된다고 본다.
- * ㄹ의 내용에 갑(칸트), 을(테일러), 병(싱어) 모두 긍정한다.

★ 정답은 ⑤ ㄷ, ㄹ이다.

오해 틀렸나?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오해한 학생들은 ②를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할 때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테일러의 우선성 원리 ★ 1등급 핵심 개념

자기방어의 원리	도덕적 행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기체에 저항하는 것
비례의 원리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보다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
최소 해악의 원리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동식물이 입을 해악을 최소화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
분배적 정의의 원리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
보상적 정의의 원리	최소 해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인간 외의 생명체에 대해 보상하는 것

1회 01 정답 ③ * 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정답률 73%]

| 선택지 분석 |

A 07 해설 참조

- ①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를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다. (꿀팁)
-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③ 도덕 명제의 진위를 판별하는 논증을 검토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④ 선악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은 이론 윤리학의 입장이다.
- ⑤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규범을 세우는 것은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다.

1회 02 정답 ④ *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 [정답률 71%]

| 선택지 분석 |

F 07 해설 참조

- ① 갑(장자)은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평등히 바라보는 '제물(濟物)'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삶과 죽음 간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유교(공자)의 입장이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상장제례(喪葬祭禮)'를 따르며 죽음을 애도할 것을 강조한다. (꿀팁)
- ③ 을(에피쿠로스)은 인간이 죽으면 원자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는 것이라고 본다.
- ④ 을(에피쿠로스)은 죽음을 오히려 이해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불멸을 꿈꾸는 허황된 욕심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충실하여 즐거운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갑(장자)과 을(에피쿠로스) 모두 죽음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만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는 않는다. 죽음을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불교의 입장이다. (꿀팁)

1회 03 정답 ② * 예술에 대한 플라톤의 입장 · [정답률 83%]

| 보기 분석 |

S 07 해설 참조

- ㉠ 플라톤은 도덕주의 학자로서 도덕과 예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선행은 아름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 미의 추구를 위해 예술에 대한 검열 금지를 강조한 것은 심미주의 입장이다. (꿀팁) 심미주의는 예술의 자율성과 미적 가치를 강조하며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 ㉢ 플라톤은 예술은 선을 권장하고 인간의 덕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성의 도움을 받은 예술은 인간의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 플라톤은 예술가를 아름다움의 원형을 모방하는 존재로 본다. (꿀팁) 그는 '모방론'에서 장인은 침대의 이데아를 보고 침대를 만들며, 화가는 장인의 침대를 모방하는 관계임을 주장하였다.

1회 04 정답 ① * 밀의 사상 · [정답률 64%]

| 선택지 분석 |

C 04 해설 참조

- ① 밀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 등의 질적으로 낮은 쾌락보다 지성, 도덕 감정 등 고등능력을 발휘하는 데서 얻는 정신적 쾌락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한다고 본다.
- ② 밀은 공리주의 사상가로, 행위의 결과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③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한 것은 칸트이다. (꿀팁) 밀은 행위가 공리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특히 질적 쾌락을 높일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을 주장한다.

- ④ 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연적 경향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질적 쾌락을 높여야 한다.
- ⑤ 밀은 질적 공리주의 학자로서 쾌락의 양보다 질을 고려한다.

1회 05 정답 ③ * 칸트, 레오폴드, 테일러 · [정답률 51%]

| 보기 분석 |

Q 12 해설 참조

- ㉠ 갑(칸트)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연과 관련한 간접적 의무 또한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로 환원된다. 병(테일러)은 '불간섭의 의무'를 자연 존중 의무의 하나로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꿀팁)
- ㉡ 을(레오폴드)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대지 공동체 자체로 확장하였다.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탈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꿀팁) 인간중심주의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갑(칸트)은 부정하지만 을(레오폴드)과 병(테일러)은 긍정할 진술이다.
- ㉣ 갑(칸트)의 인간성 정식에 따르면 인격을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한다면 수단으로도 취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인격은 곧 도덕적 주체이므로 갑(칸트)이 부정할 진술이다.

1회 06 정답 ③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 [정답률 55%]

| 선택지 분석 |

H 07 해설 참조

- ① (가) 자유주의는 당사자들 간의 존중, 배려, 동의 등의 기본 원리를 준수했다면 쾌락 목적의 성적 관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가) 자유주의는 성의 쾌락적 가치와 자율성을 존중하므로 사람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범위와 조건을 충족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 보수주의는 성적 관계의 궁극 목적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성적 관계 자체가 목적적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④ (나) 보수주의는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 ⑤ (가) 자유주의와 (나) 보수주의가 바라보는 성적 관계의 도덕적 조건이 다를 뿐, (가) 자유주의와 (나) 보수주의 모두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1회 07 정답 ③ * 개인 정보의 윤리적 쟁점 · [정답률 60%]

| 선택지 분석 |

P 05 해설 참조

- ① 비식별 조치는 개인 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될 소지를 완화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본 토론에서의 쟁점으로는 볼 수 없다.
- ② 갑과 을 모두 운전 당시의 생체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활용해도 된다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 ③ 갑은 생체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공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질병 이력의 제공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을은 의료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갑과 을이 상반된 입장을 전개하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하다.
- ④ 갑과 을 모두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자율 주행 시스템에 제공해야 한다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 ⑤ 갑과 을 모두 자율 주행 시스템에 운전자의 의료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아니다.

1회 08 정답 ② * 맹자와 석가모니의 사상 비교 - [정답률 79%]

[보기 분석]

- ㄱ. 갑(맹자)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가진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선한 존재일지라도 욕구에 휩쓸릴 수 있으므로 과욕(寡慾, 욕심을 적게 가질 것) 등의 욕구 수양법을 제안하였다. (올바)**
- ㄴ. 갑(맹자)은 백성은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도덕성도 보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백성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은 군주의 책무이다.
- ㄷ. 을(석가모니)은 누구나 삼학(三學)이라는 실천 항목을 따라 수양하면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ㄹ. **갑(맹자)은 공자의 인(仁)을 계승하므로 준비진소의 분별에 따른 사랑을 추구한다. (올바)**
반면, 을(석가모니)은 무차별적 사랑인 '자비'의 실천을 강조한다.

[B] 07 해설 참조

1회 09 정답 ② * 칼뱅과 순자의 직업관 - [정답률 79%]

[선택지 분석]

- ① 갑(칼뱅)에게 직업은 신의 소명이므로 직업적 성공은 구원의 징표일 수 있으나, 구원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 ② **갑(칼뱅)에게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에 따른 자기 몫의 일이며, 이에 따라 직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
- ③ 을(순자)은 타고난 본성은 악하므로 함양이 아니라 선하게 변화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 ④ 을(순자)은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갑(칼뱅)은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을(순자)은 도덕 사회 구현을 위한 도덕적 삶을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으로 본다. (올바)**

[I] 04 해설 참조

1회 10 정답 ④ * 칸트와 모겐소의 입장 [정답률 35%]

[선택지 분석]

- ① 갑(칸트)은 국가의 사법권은 주권에 해당하며, 주권은 개별 국가가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즉, 주권을 평화 연맹에 일임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주권을 지녀야 한다.
- ② **갑(칸트)은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과도기적 과정에서의 방어전을 정당화한다. (올바)** 갑(칸트)은 방어전을 위해 시민들이 정기적이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모겐소)에 따르면 동맹, 군비 증강 등으로 세력 균형을 이룰 수 있으므로 국제 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하지 않다.
- ④ **을(모겐소)은 국가는 이기적 인간으로 구성되고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된다고 본다.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과 생존이므로 국익을 근거로 국제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 ⑤ 갑(칸트)은 자연 상태의 국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서 더욱 높은 상위의 법적 공동체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을(모겐소)은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 기구가 없다고 본다.

[Y] 08 해설 참조

1회 11 정답 ⑤ * 엘리아데의 입장 [정답률 80%]

[선택지 분석]

- ①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은 자연을 종교적 존재로서 인식하지만, 성스러운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 ②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다르다고 본다.
- ③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된다고 본다.

[V] 04 해설 참조

④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한다고 본다.

⑤ 엘리아데는 비종교적 인간일지라도 그들은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므로 의례를 준수하거나 신화를 신뢰하는 등 종교적 지향을 지닌다고 본다.

1회 12 정답 ① * 유전자 편집 기술 [정답률 71%]

[선택지 분석]

[G] 04 해설 참조

- 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이 인간에게 해악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①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하다.
- ②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의 안전성이 불확실하다는 주장은 ①의 근거로 적절하다.
- ③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①의 근거로 적절하다.
- ④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부의 격차를 확대한다는 주장은 ①의 근거로 적절하다.
- 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인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①의 근거로 적절하다.

1회 13 정답 ⑤ * 통일에 대한 입장 [정답률 85%]

[선택지 분석]

[X] 02 해설 참조

- ① 칼럼에서는 분별 있는 애국심이 통일의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무조건적 애국심에 기반하면 안 된다.
- ② 통일로 얻을 수 있는 통일 편익은 통일에 대한 실리적 접근을 가능케 하므로 통일 찬성 근거로 채택될 수 있다.
- ③ 통일의 필요성은 민족적 일체감의 회복뿐만 아니라, 시민적 자유 확대나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의 투자 등 다양한 실리적 목적으로도 정당화할 수 있다.
- ④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거주 공간 확대 이외에도 자유와 평등 실현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 ⑤ **통일 국가에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공동선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회 14 정답 ④ * 윤리적 육식 [정답률 84%]

[보기 분석]

[T] 04 해설 참조

- ㄱ. 갑은 모든 유정적 존재(감정이 있는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인간과 동물은 유정적 존재에 속하는데, 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하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ㄴ. **갑은 동물 복지를 추구하는 환경에서 자란 동물은 자연의 먹이 사슬에 노출된 동물보다 생존의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보았다. 이를 근거로 윤리적 육식은 가능하다고 본다.**
- ㄷ. 을은 동물의 고통을 줄일 것을 강조하므로 인간 이익만이 음식 소비의 윤리성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ㄹ. **갑은 동물 복지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 을은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을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본다. 그러므로 갑과 을 모두 고통을 가중하는 축산 방식은 비윤리적이라고 지지할 것이다.**

1회 15 정답 ② * 흡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 - [정답률 52%]

[보기 분석]

[M] 13 해설 참조

- ㄱ. 갑(흡스)은 '군주주권론'을 지지하므로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민은 주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을(로크)과 병(루소)은 '국민주권론'을 지지하므로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민은 주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차 례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 1등급 대비 개념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 01. 윤리학의 구분 02
- 02.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04

II 생명과 윤리

- 03. 죽음과 윤리 06
- 04. 사랑과 성 윤리 09

III 사회와 윤리

- 05. 동서양의 직업관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
- 06. 니부어의 사회 윤리 12
- ★ 07. 다양한 분배적 정의관 [1등급 대비] 14
- 08. 교정적 정의와 사형 [고난도 대비] 22
- 09. 시민 불복종 [고난도 대비] 26

IV 과학과 윤리

- 10. 과학 기술과 가치 중립성 28
- 11. 정보 공유론과 정보 사유론 30
- ★ 12. 자연과 인간의 관계 [1등급 대비] 32

V 문화와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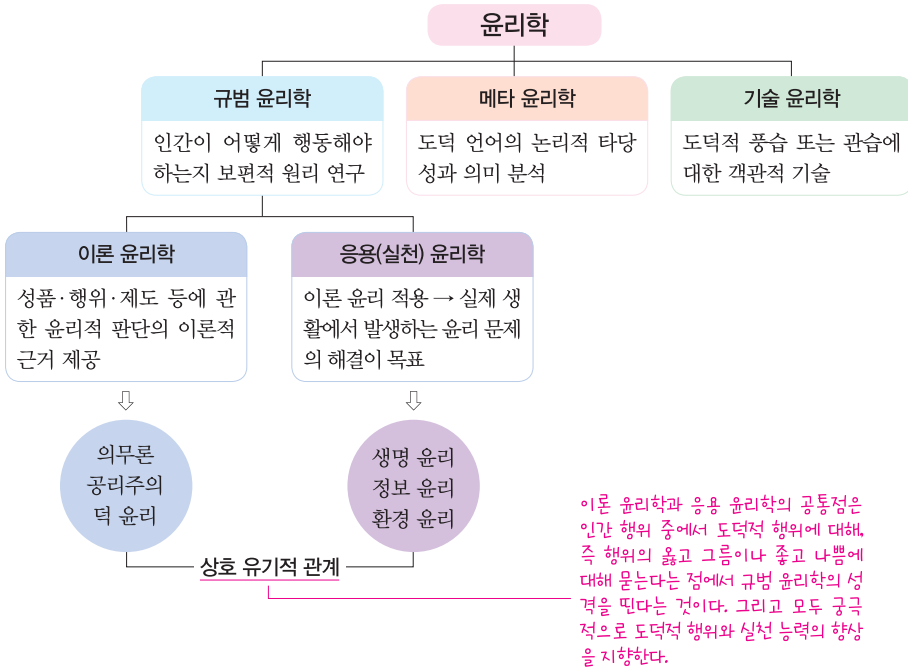
- 13. 예술과 윤리 40
- 14. 다문화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 41
- 15. 종교와 윤리 42

VI 평화와 공존의 윤리

- 16. 소통과 담론 윤리 44
- 17. 해외 원조에 대한 다양한 입장 [고난도 대비] 46

01 윤리학의 구분

★ 윤리학의 종류



★ 각 윤리학의 관심 분야

응용(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윤리학의 근본 과제는 현실에서 적용 가능한 도덕적 규범이나 원칙을 탐구하여 이를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 예) 생명 윤리, 정보 윤리 등	'옳다는 것과 그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목	윤리학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개인의 생활,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해 온 도덕적 관행들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서술해야 함 예) 특정 공동체의 도덕적 관습 조사

★ 문제 풀이

최근에는 응용(실천)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혹은 응용(실천)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의 입장이 묶여서 출제된다. 따라서 각 윤리학을 대표하는 표현을 기억해 두면 제시문이나 선택지에서 말하는 윤리학의 종류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 고민은 응용(실천) 윤리학, 언어의 명료함 혹은 논리적 정당화 가능성에 관한 고민은 메타 윤리학, 경험 과학적 사실을 연구하는 것은 기술 윤리학에 속한다.

정의롭지 못한 정부나 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지키는 일!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니다.



소로

공공의 정의관에 대한 현저한 위반이 존재할 때,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롤스

★ 소로와 롤스의 시민 불복종

소로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마땅히 소유할 권리가 있는 단 하나의 의무, 그것은 곧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때이건 행사하는 것이다.” - 헌법을 넘어서 개인의 양심이 저항의 최종 판단의 근거임 - 자신이 옳다고 믿는 양심에 어긋나는 불의한 법에 복종하지 말아야 함
롤스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는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에 달려 있다.” -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정의관에 어긋나는 법과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행해져야 함 -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근거: 법에 대한 충실성, 목적의 정당성, 최후의 수단, 공개적, 비폭력적, 처벌 감수 -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차등의 원칙이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를 강조하는 원칙인데,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모두 부유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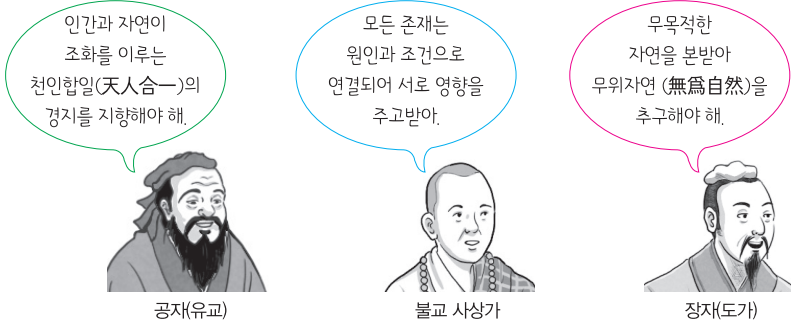
★ 문제 풀이

생활과 윤리의 킬러 주제이다.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빠짐 없이 등장한다. 이 단원은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되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롤스의 시민 불복종은 매우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다. 롤스가 언급한 시민 불복종의 구성 요건(법에 대한 충실성, 목적의 정당성, 최후의 수단, 공개적, 비폭력적, 처벌 감수)은 꼭 알아두자.

12 자연과 인간의 관계

★ 1등급 대비

1 동양의 자연관



★ 자연을 바라보는 동양의 관점

유교	불교	도가
• 만물이 본래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천인합일의 경지를 지향함 •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다른 존재와 타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봄	• 모든 존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함 • 불살생의 계율에 따른 생명 존중 사상 등은 환경친화적 사상을 갖는 데 도움을 줌	• 자연이 아무런 목적이 없는 무위(無爲)의 체계로서 무목적의 질서를 담고 있다고 봄 • 무위자연을 추구하여 인간의 인위적인 의지나 욕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중시함
“자신의 본성을 이해하면 하늘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자신의 본성을 기르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다.” ↓ 하늘을 인간의 선한 본성의 근원으로 보고 인간이 자연을 본받아 타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함	“모든 존재는 나의 부모로, 그들을 해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해치는 것이다.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옛 몸이다.” ↓ 만물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만물의 상호 의존성에서 비롯된 사랑인 자비의 실천을 강조함	“진인(真人)은 그 마음이 무심하여 밧줄처럼 평탄하고 그 변화는 모두 자연을 따르고 있어서 사물에 거역하는 일이 없다.” ↓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강조함

★ 동양의 자연관 특징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한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은 인간 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관에서 비롯된 오늘날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혜를 줄 수 있다.

2 서양의 자연관

★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대표 사상가 칸트

자연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의무 뿐입니다. 자연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킵니다.

신은 동물을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었어요.



아퀴나스

자연은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베이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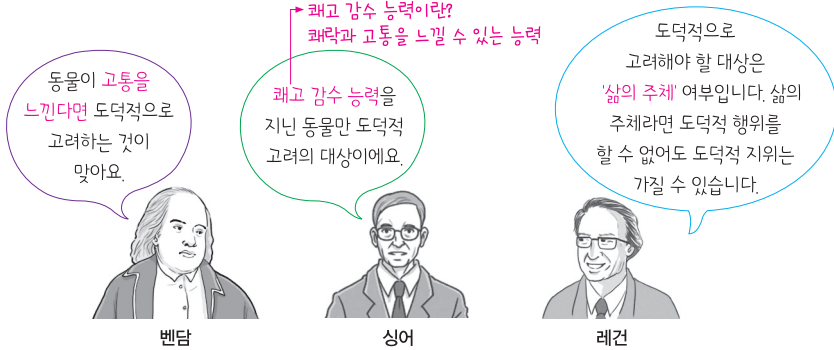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 장치일
뿐이에요.



데카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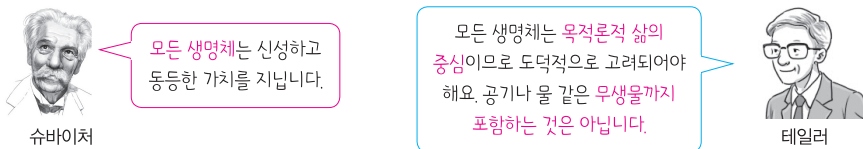
입장		• 도구적 자연관 • 자연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 → 인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님
대표 사상가	아퀴나스	동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음
	데카르트	모든 존재를 정신과 물질로 구분 → 자연은 단순한 물질이며 하나의 기계에 불과함
	베이컨	인류의 복지를 위해 자연을 정복할 지식 강조
	칸트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의 주체임(인간 이외 존재에 관련해서는 간접적 의무 지님 - 동·식물, 광물)
의의 및 한계		• 의의: 인류가 자연을 이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림 • 한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지배 정당화

★ 동물 중심주의



입장		• 감정 중심주의 • 동물도 쾌고(快苦)를 느끼는 존재 →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 포함
대표 사상가	벤담	동물을 대우할 때 고려할 것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임
	싱어	공리주의에 근거 → 이익 관심(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함)을 가진 동물을 인간과 차별하는 것은 중 차별주의·중 이기주의에 해당
	레건	의무론에 근거한 동물 권리론 주장 → 삶의 주체인 일부 동물도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이므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됨
의의 및 한계		• 의의: 동물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기여 • 한계: 동물 이외의 식물,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 미흡

★ 생명 중심주의



입장		•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님 •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 → 인간 중심주의 탈피
대표 사상가	슈바이처	도덕의 근본 원리는 '생명 외경' → 생명을 유지·고양하는 것은 선(善), 파괴·억압하는 것은 악(惡)
	테일러	•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생명의 목적성'을 추구함(목적론적 삶의 중심) • 생명체에 대한 의무: 악행 금지,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의 의무
의의 및 한계		• 의의: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일깨워줌 • 한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 등을 포함한
대지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네스

인간 및 비인간 생명의
복지와 번영은 그 차제로
가치를 지닙니다.

입장		전일론적 관점 →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
대표 사상가	레오폴드	- 대지의 윤리: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 동물을 포함하여 대지까지 확대, 인간은 대지의 구성원 - 개체로서 생명의 가치보다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 중시
	네스	심층 생태학: 인간이 자연을 자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 더불어 살아갈 때 '큰 자아실현' 가능
의의 및 한계		- 의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각 필요를 일깨워 줌 - 한계: 전체를 위한 개별 존재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환경 파시즘'으로 흐를 수 있음

★ 서양의 자연관에 있어 도덕적 고려 범위

생태 중심주의



물, 대지,
공기, 흙 등
모든 생태계

생명 중심주의



생명체는
모두 포함

동물 중심주의



싱어: 꽤고 감수 능력이 있
는 동물까지 고려
레건: 삶의 주체인 동물

인간 중심주의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

★ 문제 풀이 꿀팁

생활과 윤리 전 영역 중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이다. 인간 중심주의와 탈인간 중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탈인간 중심 내에서의 입장 차이를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레건과 싱어를 함께 비교해야 했던 2021 6월 포맷 문제의 정답률은 43%에 불과하다. 차이점을 꼼꼼히 비교해 정리해 두자!

